Entertainment p/18
조정석-거미 2년 째 열애중
metro
Sports p/20
"이청용 이적료 17억원"
오리타고 온 脫朴
유승민 원내대표 압승… 朴 '레임덕' 심화 우려 p/2
정의선 '쓸개 면제'
국회, 조사 착수
두 남자 사이 줄타는 이연두 p/17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 www.metroseoul.co.kr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수류탄 놓친 훈련병 구한 육군훈련소 소대장 육군훈련소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김현수(33) 상사는 지난달 23일 실수로 훈련병이 수류탄을 놓친 절체절명의 순간에 몸을 아끼지 않은 헌신적인 행동으로 훈련병을 구했다. 사진은 수류탄 투척 훈련 모습. /연합뉴스

"단숨에 날아가 불마당질"

김정은 '미항모 기습훈련' 등 한반도 긴장 높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첫 비행훈련으로 표창 휴가를 받은 전투비행사들을 만나 "원수들이 움찔하기만하면 단숨에 날아가 침략의 본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불마당질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비서는 비행사들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불러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주문했다.

이에 비행사들은 "명단 명령이 내리면 가장 위력한 무기인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 자폭정신으로 적들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김정은 붉은비행대의 위력을 과시할 맹세를 다졌다"고 답했다.

집권 이후 공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김 제1비서는 올해 들어 추격기 폭격기 부대의 비행 전투훈련을 직접 지휘하고 금 해군 합동훈련도 직접 지시하는 등 공군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르면서 최근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기습타격하는 침투훈련을 직접 기획하고 시찰하는 등 공군력을 활용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제1비서가 건설부문 평가회에인 '2014년도 건설정령 총화를 위한 군중간부회의'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인민무력부 건설자재전시회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인민무력부 건설부문 공구전시회장을 돌아본 김 제1비서는 "군인건설자들에게 기공구는 전투무기와 같다"며 자재·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늘리고 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원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김 제1비서를 수행했다. /유현희기자 yoona-hr

"잠수함사령부 창설 축하해요"

세계 6번째 잠수함사령부 창설국이 된 한국을 축하하기 위해 미 해군 원잠(핵에너지 동력 잠수함) 올림피아호(SSN-700LA급)가 지난달 30일 진해군항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2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올림피아호는 한·미 군사교류 증진과 한국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창설 축하 등을 목적으로 방문했다"며 "한·미 해군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해 오는 5~7일 한국 해군 잠수함과 연합 훈련도 한다"고 밝혔다.

올림피아호는 1983년 진수된 LA급으로 미사일은 탑재하지 않고 있다. 길이 110m에 승조원 120여명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한국 해군의 초청으로 방한한 올림피아호는 이번 방문 기회를 이용해 한국 해군 잠수함과 한반도 근해에서 적 수상함·잠수함 탐지 훈련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장인 토머스 슈가트 중령 등 올림피아호 승조원들은 이날 오후 진해군항에서 열리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창설식에도 참석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리는 잠수함사령부 창설식에는 최기봉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주요 지휘관과 장병,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미국 태평양잠수함사령관인 필립 소이어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대 창설 약한명령 낭독, 부대기 수여, 창설 경과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초대 잠수함사령관 윤정상 소장의 식사, 국방부 장관 훈시 순으로 진행된다. /정윤아기자

지난해 7·14전당대회에 이어 두 번째 비박(비박근혜)의 승리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63번째 생일날에 벌어진 원내사건이다. 파괴력은 전당대회보다 더 클 전망이다. 2일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경선 승리는 김무성 대표와 달리 '박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연기해 세 명의 장차관 표까지 투입했지만 여당내 지원세력인 당지도부 원내지도부를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좌면우고하지 않는 성격이란 평을 듣고 있다. 청와대와의 정면충돌을 피해 온 김 대표와는 다르다는 평가다. 청와대의 전향적 쇄신이 없다면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생일날 '친박 몰락'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선출·전당대회 이어 두번째 비박 승리

이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결과는 유승민 84표, 이주영 65표였다. 박빙 승부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랐다. 지난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당대회 결과는 김무성 5만2706표, 서청원 3만8293표였다. 친박(친박근혜) 좌장이라는 서 의원, 새로운 친박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 의원이 모두 크게 패했다. 당심에 이어 의원들의 마음까지 모두 친박을 떠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선결과가 나온 직후 "유 의원(신임 원내대표)이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하다보면 사사건건 (청와대와) 충돌할 수 있으며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유 의원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새로운 갈등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각에서는 유 신임 원내대표의 '원조 친박' 경력을 근거로 애써 낙관론을 펴기도 했지만 유 신임 원내대표는 승리 직후 방송에 출연해 '작인사살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최근에 연말정산 파동이나 건강보험료 파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청와대가) 바닥민심을 너무 모르고 그런 정책이나 법을 도입했을 때 국민들에서 얼마나 분노하실지를 모르고 이런 실수를 자꾸 저지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정치여) 옳은 길이라면 당이 약간의 반대여론이 있더라도 적극 추진을 하겠다"며 "만약 그게 옳은 정책이 아니고 또 국민의 민심하고도 너무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라면 저희들이 정말 청와대와 정부하고 거의 매일 소통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소통이라고 표현했지만 주변은 보다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 신임 원내대표의 승리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대통령의 불통과 독단에 경고음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유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할 말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illegible] 오른쪽 [illegible]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서 원내대표에 출마한 유승민(사진 왼쪽) 이주영(사진 가운데) 의원에게 인사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날 경선에서 친박은 지난해 전당대회에 이어 또 다시 대패, '친박몰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돌연사퇴' 문체부 차관 '묵묵부답'

김희범(56)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사퇴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달 돌연히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에서는 유진룡 전 장관의 돌연한 면직 등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체부 간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지만 함구로 일관했다.

지난달 말 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뒤 문체부는 김 차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의 면직, 청와대의 문체부 인사 개입설 등이 나도는 상황이라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과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김종 제2차관과의 갈등설 등이 김 차관 사퇴 배경으로 이미 퍼져 있는 상태다.

문체부 내 입지가 좁아져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1차관의 업무를 줄이고 2차관 업무를 대폭 늘렸다. 당시 문체부 1급 인사들이 일괄 사표를 냈고 이 중 3명은 문체부를 떠났다. /송병형기자

'정의선 쓸개 면제' 조사 착수

국회에서 진상조사… 국방부에 자료제출 요청

정의선(사진) 현대차 부회장처럼 담낭(쓸개)절제 등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없는 특이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유사사례에 대해 국회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자 메트로신문 기사(현대차 정의선, 쓸개 떼내고 병역면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진상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에는 정 부회장이 시술받은 담낭절제와 같이 국방부 규정이 강화되면서 병역면제 대상에서 빠지거나 요건이 강화된 특이병력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포함됐다.

또 해당 특이병력들이 ▲어느 기간에 면제를 받았는지 ▲연도별 면제 건수는 얼마인지 ▲전체 병역면제 건수에서 해당 특이병력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면제가 되는 특이병력을 정하는 규정은 그동안 수차례 변경돼 왔다.

이로 인한 신체검사 대상자들 간 형평성 논란은 물론이고 면제대상 특이병력 결정 과정에서 군 관련자에 대한 로비 등 병무비리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요청자료에는 ▲특이병력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특이병력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됐다.

정 부회장은 1970년생으로 1989년 이후 병역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관계자는 "최근 30년 동안의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KTX 서대전역 경유 '관철-반대' 맞불시위 KTX 서대전역 경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은 2일 서대전역에서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관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왼쪽). 광주시와 전라남북도 광역·기초의원들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실사격에 성공한 국산최초 전투기 FA-50. /공군 제공

KFX 미래, 미국이 좌우?

미 협력업체, 핵심기술 이전 불투명
전문가 "범정부 국책사업단 필요"

오는 9일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체계개발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의 무기제조 업체에서 핵심기술의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일 국방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KFX사업 제안서를 내려는 회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KAL) 두 곳이 유력하다. KAL은 기존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미국 보잉사가 아닌 유럽의 에어버스사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회의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땅콩회항' 사건 등 복잡한 상황도 사업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KAI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는 이유다.

KAI는 고등훈련기(T-50)·훈련기(TA-50)·경공격기(FA-50) 등 그간 대부분의 사업을 록히드마틴사와 함께 했다. 이번 KFX사업 역시 록히드마틴사와 일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록히드마틴 측은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성용 KAI사장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록히드마틴과의 기술이전에 대해서 "록히드마틴 사장과 얘기했는데 기술 이전은 흔쾌히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하면서도 "핵심기술은 미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록히드마틴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미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발급하지 않으면 못주게 돼 있다"며 "미 정부의 수출승인(EL)부문과 관련해 정부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많은 기술을 전해주도록 요청하는 활동을 재 당국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중대한 역할을 맡은 방사청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게 문제다.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전문성이 떨어지는 방사청이 KAI와 같은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한 군사전문가는 "사실상 핵심기술이전이 어려운걸 알면서도 미국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책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국책사업단이 통제하고 유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국산화되는 것을 선별하고 안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한 국외의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정윤아기자 ykone1@

2월 국회, 거대자본과 한판승부

김영란법 논쟁 격화… 김학수법 혈투 예고

2일 문을 연 2월 국회를 무대로 거대자본과의 한판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고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은 재벌과의 새로운 싸움을 예고한 상태다.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자는 것이지만 한 꺼풀 더 벗겨보면 거대자본의 불법로비를 막자는 게 본질이다. 입법 배경부터 이를 뒷받침한다. 2010년 4월 부산 건설업자가 57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향응과 성상납을 했다는 보도의 파장은 컸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

같은 해 9월에는 이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와 명품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린다. 처벌이 당연하다는 여론과는 달리 법원은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직무연관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 공분에 기대어 추진된 법안이 바로 김영란법이다.

거대자본의 불법로비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모 업체로부터 각각의 직책에 기초에 맞는 뇌물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뇌물 목록에는 제네시스·뉴비틀 등 명차들, 독일제 자전거, 고급카오디오, 골프레슨비 등이 포함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재판이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송에 출연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취득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올해 5월 끝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학수법을 2월 국회에서 만들고 4월 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학수법은 재벌가의 삼장 차익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물론이고 최근 삼성SDS 상장으로 천문학적인 차익을 챙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가 1차 표적이다.

2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전개되는 상황은 비관적이다. 언론인과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 내 갈등 회와 시민단체는 이날 원안 처리 강행을 요구했다. 이들의 비판은 수정을 원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의대 등판을 향하고 있다. 이학수법을 가로막을 난관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송병형기자

"회고록 오해하지 않았으면…"

MB측 청와대에 전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고록과 관련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이 전 대통령 쪽 인사가 청와대 인사에게 전화를 해 그런 뜻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국정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고 여기에는 '정운찬 대망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 등 현 정권과의 민감한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통일대박론'에 찬물을 끼얹는 남북 비밀접촉의 비사도 담겨 있다. /송병형기자

날아다니는 백곰?

하바로프스크 공항 포스터 인기

metro Russia

러시아 하바로프스크공항이 여러 공항 포스터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메트로 모스크바에 따르면 하바로프스크 공항은 새로 제작한 공항 포스터를 통해 오랜 시간 비행에 지친 공항 이용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 배경에 백곰이 두 팔을 활짝 펴고 여유롭게 비행하는 듯한 모습의 포스터에는 하바로프스크 공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하바로프스크 공항 관계자는 "포스터 이미지는 러시아 유명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맞대 만든 것으로 백곰은 하바로프스크 주의 문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팔을 가르며 비행하는 귀여운 백곰의 모습이 인기의 비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포스터가 인기를 얻으며 공항 포스터를 패러디한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하이테닉 호의 한 장면, 백곰 슈퍼맨 등 누리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보태진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 마이 올라/정리=이가영 기자

18개월만에 무려 1000배

존 컨스터블 풍경화 화제

18개월만에 경매 가격이 1000배나 오른 풍경화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5백만 달러(약 57억 원)에 팔린 이 그림은 영국의 낭만주의 화가 존 컨스터블(1766~1837)의 '목초지에서 본 솔즈베리 대성당'(사진)이다. 이는 예상가인 200만~300만 달러의 2배를 호가하는 수치다.

당초 이 미술품은 2013년 7월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5121 달러(약 570만원)에 팔렸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1000배나 뛰어 가격에 낙찰된 셈이다.

이런 엄청난 가격 차이는 전문가들의 엇갈린 진품 판단에서 발생했다.

크리스티는 2013년 당시 이 그림을 컨스터블의 작품이 아닌 모작으로 판단했지만 소더비는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美 '부자 기업' 세금 늘린다

오바마 국외 수익·유보금 과세 제안…공화당 반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에 골몰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국 기업에게 칼날을 겨눴다.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 국외 수익과 유보금에 과세 추진을 공식화했다.

AP·CNN·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하는 2016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 30일) 정부 예산안에서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한 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380억 달러(약 262조8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본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국외수익에 대해서도 19%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외수익 과세는 미국 기업이 국외 수익을 본국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등 편법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업이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2조 달러에 대한 세금 납부를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단 세금을 내면 국외 이익을 미국에 재투자할 때 추가 세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본국 투자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소득 증대 위한 재원마련

오바마의 이번 개혁안은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 세출위원장은 "공화당은 정부와 세제 개혁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서로 협조해 검토하고 싶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독단적 추진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임기를 2년 남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중산층 소득 증대를 위해 '부자증세'의 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본소득·배당이익 최고세율을 23.8%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주자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 방향을 제시했다"며 "중산층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 있을 도모할 때"라고 환영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겨울왕국?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이 1일(현지시간) 온통 눈에 뒤덮여 있다. 미 기상청은 이날 중서부 네브래스카주에서 북동부 뉴잉글랜드주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를 내리고 특히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는 눈폭풍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헤어공항과 미드웨이공항을 이용하려던 항공기 140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다. /AP·연합뉴스

美 지상군·日 자위대 손잡나

IS 격퇴전 투입 검토

IS의 일본인 참수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IS 격퇴를 명분삼아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국제 실력을 없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제적 논란 속에 주춤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의 비정부기구(NGO)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무기 사용이 집단 자위권이 아닌 '경찰권' 차원에서 행해진다고 설명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는 아베 총리가 자위대 법안 수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다. 냉정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IS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상군 투입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CNN과의 퇴임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면서 "어쩌면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병력 일부의 전진 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이나 군사 작전 수립을 위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16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1일 CBS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 동맹의 공습만으로는 IS를 격퇴하기 어렵다"며 "IS를 성공적으로 물리치려면 약 1만 명의 미 지상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새주인 찾은 DGB생명, 기지개 펴나

지역 기반 방카슈랑스로 매출 확대 기대

지난해 잇딴 매각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우리아비바생명이 DGB생명으로 공식 출범했다. DGB생명은 앞으로 모회사의 은행점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달 30일 서울 DGB생명 본사에서 임직원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수익 중심의 중장기 내실성장 추진과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그룹 시너지를 통한 그룹 고유의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오는 2019년 생보사 톱10 진입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최우선 전략 지역 확보 ▲고객 니즈에 맞춘 상품 개발·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스마트 경영관리를 통한 지속 성장 추구의 3가지 중점과제도 발표했다.

우선 모회사의 인지도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비중은 현재 11.6%에서 25%까지 늘릴 계획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한 적극적인 영업도 추진하는 등 현재 6억원 안팎인 월 초회보험료도 오는 2019년까지 19억5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DGB생명의 성장을 위해서는 모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출발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으로부터 당시 우리아비바생명의 주식을 인수한 DGB금융은 한 달여 만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았다.

업계는 금융위가 DGB금융이 우리아비바생명에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이 승인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DGB금융도 이에 맞게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을 높인다는 재무목표를 세우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제공

하지만 잇단 매각으로 실적이 부진한 DGB생명에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DGB생명은 지난 2012년 56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지난 2013년 0원, 지난해에는 11월 말까지 233억1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전체 운용자산 이익률도 지난 2013년 말 4.4%에서 지난해 11월 말 3.9%로 0.5% 하락했다. 위험손해율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111.1%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DGB금융이 적극적으로 DGB생명을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보험업계의 장기 불황에다 지난 2012년 그린손보를 인수한 새마을금고도 결국 지원에 한계를 느껴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DGB생명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GB생명이 부산에서 시작된 만큼 이번 인수로 시너지 효과는 얻을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직안정화가 이뤄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DGB생명은 지난 1988년 부산생명보험으로 설립돼 1993년 한성생명보험, 2000년 럭키생명보험, 2006년 LIG생명보험, 2008년 우리아비바생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해 6월에는 NH농협금융에서 DGB금융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김형석기자 khs840406@metroseoul.co.kr

한화생명, 'AAA'

3대 신평사서 8년 연속

한화생명은 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8년 연속 보험금지급능력 최고등급인 'AAA/안정적'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대규모 영업망을 기반으로 설계사 인력관리가 우수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영업 채널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대면채널에서의 영업효율지표도 업계 최고수준을 보였다.

또한 보장성 보험 영업 강화를 통해 시장의 확보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3분기 보장성 부문의 연납화보험료(APE)가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수익성이 우수한 종신보험, 중대질병(CI)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돼 향후에도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수익증권과 해외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자산 다각화를 통해 신규투자수익을 제고하고 있다.

고정 이하 부실대출비율도 지난해 3분기 기준 0.29%로 우수한 자산건전성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김형석기자

설 선물세트 본격 판매 2일 서울 롯데백화점 명동본점에서 모델들이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은행대출, 1년새 94조원 늘었다

연체율 0.64%로 5년래 최저

지난해 국내은행의 대출액은 94조원 급증했지만 연체율은 5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25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3조8000억원, 전월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518조2000억원으로 1년 동안 39조2000억원 확대됐다. 다만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년새 37조2000억원이 늘어 잔고는 3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은 183조5000억원으로 지난 한해 동안 18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12월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합병되면서 대기업 대출이 8조80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522조4000억원으로 작년 한해 동안 33조5000억원 커졌지만 12월 중 6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64%로 전년의 0.76%보다 0.12%p, 전월말(0.89%) 대비 0.25%p 하락했다.

이는 연말을 앞두고 정리(4조5000억원)된 연체채권 규모가 월중 신규 연체 발생액(1조3000억원)을 상회한데 기인한 것으로 2009년 12월의 0.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0.7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원화) 연체율은 0.47%로 전년 동월보다 0.14%포인트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원화) 연체율은 0.41%로 0.17%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감안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miran0113@

market index <2일>

코스피	코스닥
1952.68 (+3.42)	580.27 (-1.39)

금리	환율
1.99 (+0.02)	1100.80 (+5.00)

여름 대표과일 참외 나왔어요 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홍보모델과 어린이가 여름 대표과일인 참외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보안없는 핀테크 사상누각"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은 2일 "핀테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안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보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서비스는 결국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카드 본사를 방문해 '금융 IT 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거래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뤄지다 보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부정거래 등으로 고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핀테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금융IT 보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IT 보안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미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91

등록금 납부하고 장학금 받고

농협은행 28일까지 '의기羊羊 이벤트' 실시

NH농협은행은 2월 대학등록금 납부 철을 맞아 '의기羊羊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농협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 100명은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200만원, 2등 2명에 각 100만원, 3등 5명에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행운상으로는 30명에게 영화 예매권 2매, 62명에게 기프티콘(스타벅스 해피콘) 2만원 상당을 준다. 행사에 별도의 응모절차는 없으며 당첨자는 3월 9일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서기봉 농협은행 공공금융부장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고객인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제공

/백아란기자

정기예금 실질금리 1%대

저금리 장기화에 신한·우리銀 예금금리 ↓

저금리 장기화로 예금금리가 1%대까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예금은행에서 새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42%로 전년의 역대 최저 기록인 2.70%을 경신했다.

특히 명목 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1.12%에 그쳐 3년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저물가로 명목 금리 추이와 다르게 움직이던 실질 금리까지 떨어진 것이다. 앞서 정기예금의 실질 금리는 2011년 마이너스(-0.31%)에서 2012년 1.23%, 2013년 1.40%로 집계됐다.

국고채 3년물 수익률 또한 지난달 30일 기준 1.97%로 지난해 3월(2.91%)에 비해 1% 포인트 가까이 내려갔다.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사용하는 방식(실질금리=명목금리-기대인플레이션율)으로 계산하면 은행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질 금리는 한층 더 낮은 상황이다.

이는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율로 이뤄진다는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의 이론에 기초한 것. 이에 따른 실질 정기예금 금리는 2013년 -0.29%에서 지난해 -0.37%로 떨어졌다.

한편 금리 경쟁력이 내려감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정기예금 금리를 속속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우리사랑나누미 정기예금(1년만기)' 금리를 2.0%에서 1.9%로 낮췄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30일 정기예금 상품인 '신한 S드림 정기예금'의 금리를 2.0%(1년만기 기준)에서 1.9%로 0.1% 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대에 내려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마트폰 전용 상품인 'U드림 정기예금(1년만기)' 금리도 2.0%에서 1.9%로 하락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의 금리가 하락함에도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돈을 달리 맡겨둘 데도 없고 결제 등 편리성 때문에 은행과 같은 예금취급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나오는 특화 상품이나 스마트 금융 등을 통한 예금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wel1993@metroseoul.co.kr

기업은행, 'IBK ONE뱅킹'

가입 400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 실시

기업은행은 오는 3월 31일까지 스마트금융 서비스 'IBK ONE뱅킹' 가입고객의 400만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IBK ONE뱅킹 400만번째 가입 고객에게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증정한다. 399만번째와 401만번째 고객에게는 40만원 상당의 실버바를 제공한다.

또 IBK ONE뱅킹 최초 이용고객 8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핫초코와 도넛 교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ONE뱅킹 최초 이용고객 중 비대면 상품 가입고객 300명에게는 1만원권 문화상품권도 제공한다. 모바일웹(m.ibk.co.kr) 내 퀴즈 이벤트 참여 고객 200명에게도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응모방법은 IBK ONE뱅킹 최초 이용 후 모바일웹(m.ibk.co.kr)에 접속해 성명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김형석기자

2015 Happy New Year

판매기간 2015. 02. 04 ~ 02. 17 (조기소진 시 판매종료)
상품구성 미국 USD 유럽 EUR 중국 CNY 호주 AUD 캐나다 CAD

외국통화 세뱃돈 세트 판매

KEB 외환은행

외환은행 설맞이 '외국통화 세뱃돈 세트' 판매 외환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외국통화 세뱃돈 1만 5000세트를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외국통화 세뱃돈 세트는 행운의 미화 2달러를 포함해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등 5개국의 통화신권으로 구성된 통화상품으로 4일부터 선착순 한정 판매된다. /외환은행 제공

KB국민은행, 고객정보 보호 정책 강화

KB국민은행은 고객신뢰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고객정보 보호 정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태 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국민은행은 고객과의 모든 거래 시 주민번호 대신 안전한 KB-PIN을 사용한다. KB-PIN(KB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은행관리번호로, KB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하여 고객을 구분한다.

수집정보를 최소화한다. 국민은행은 거래 시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고 고객은 계약 필수 정보(이름, 연락처 등 6개)만 제공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본인의사에 따라 나머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동의서 내용도 명확해진다. 동의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해 고객의 의사에 따라 동의 가능하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되며 앞으로 고객은 필수사항 동의만으로 기본적인 금융거래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외부노출 관행도 개선된다. 모든 주민번호 기입란은 앞으로 생년월일로 변경된다. 필요 시 관리매체나 카메라 등을 통해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한다. 또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보관된다.

정보주체 권리(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이 강화된다. 자기정보결정권에는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소비 중지 요청권의 4가지 권리가 있다. 이중 연락중지 청구권은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도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추가 개선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은행 내 거의 모든 거래에 주민번호 대신 KB-PIN이 사용된다"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고객이 안심하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2월 9일 [월]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기획 | tvN · 제작 | MI
연출 | 표민수 · 박찬율 극본 | 윤난중

"독보적 PB 하우스 만들어 지속성장 원년"

홍성국 대우증권 사장 "자산관리 강화할 것"

홍성국 KDB대우증권 사장은 2일 지점 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리테일 WM(자산관리) 부문의 정상화를 통해 올해 지속성장의 기틀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대표이사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3~4년간 증시 침체로 증권사들이 지점 영업 부문이 크게 위축돼 손익구조가 S&T(세일즈앤드트레이딩)와 IB(투자은행) 등의 부문에 편향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점 영업 부문을 정상화해 균형 잡힌 손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올해 국내 최고 금융사로 도약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으로 ▲균형 손익구조 구축 ▲신규 수익원 확보 ▲창조금융 활용 등을 제시했다.

홍 사장은 WM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최고의 PB(프라이빗뱅커) 하우스를 만들어 자산관리 전 분야를 커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의 역량이 집합된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성국 KDB대우증권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2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신년 포부와 계획을 밝히고 있다. /KDB대우증권 제공

이를 위해 '독보적 PB하우스 추진단'을 설치해 상품·서비스 콘텐츠 공급과 관련된 사업 부문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PIB(프라이빗 IB) 점포를 활성화해 지점 영업을 개인 고객 뿐만 아니라 법인 고객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점 PB들을 국내 최고 수준의 PB로 육성하기 위해 실전, 실무, 체험형으로 세분화한 교육으로써 전문성도 강화한다.

그는 지난해 성과에 대해선 "주요 사업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적 비용 부담요인을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한해 S&T 부문의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는 등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성과를 되짚었다.

홍 사장은 올해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업부문별 전략으로는 "IB사업부문은 기업금융부문과 투자금융부문, 기업여신 등으로 정비하고, IB 3부를 신설해 중견·중소기업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T 부문에서는 국가별 시장환경과 금리 인상과 같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신흥국 등지로 시장을 확대한다. 기령 대우증권이 전략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경우, IB업무와 기관영업을 확대해 현지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초자산을 다양화한 하이브리드(원유자) 지수 혼합 신상품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홍 사장은 창조금융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에 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성장사다리 펀드 운영과 산업은행과 협업,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대우증권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팔리는 입장"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또 매각에 앞서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WM 부문의 육성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한편 홍 사장은 지난 1986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첫 공채 출신 수장이다. /이현미기자 purple@metroseoul.co.kr

원유펀드에 뭉칫돈… 1달새 5배

원유ETF 거래량 폭발적 증가

국제유가가 하락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면서 올 들어 원유펀드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투자자들이 향후 유가 반등을 노리고 저가매수에 나섰다.

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새해 첫 달인 1월에 삼성WTI원유특별자산1[WTI원유-파생](A)로 104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곤두박질친 지난해 12월 20억원이 들어오더니 연초에는 펀드 수요가 5배가량 대폭 늘었다.

지난해 초부터 7월까지 환매세가 이어지다가 8월부터 1~2억원 정도의 소폭 순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19일 새로 설정된 'KTB WTI원유특별자산1[원유-재간접]종류A'로도 벌써 4억원이 유입됐다.

원유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원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원유선물(H)'는 지난달 26일 400만주 이상 거래되며 역대 최대치를 연일 경신했다.

지난 2010년 100억원 규모로 상장된 이후 거래 부진에 한때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불거졌으나 지난해 12월 중순 처음으로 100만주를 돌파하고서 지난달부터 거침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유가 하락에 상황이 급반전됐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관련 ETF 거래량의 폭발적 증가는 시장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유가에 투자하는 국내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금, 은 등 다른 원자재에 비해 필수소비재 성격이 강한 원유 관련 상품에 저가매수세가 많이 몰렸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

미래에셋증권, 연 6.5% 스텝다운 ELS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6.5% 스텝다운 ELS 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9종을 오는 6일 오후 2시까지 총 12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지난해 증권·선물업계 민원·분쟁 급감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은 급증

지난해 증권·선물업계의 민원·분쟁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66개 회원사로부터 보고된 작년 민원·분쟁을 분석한 결과, 38개사에서 5503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2만2320건과 비교해 75% 이상 감소한 수치다.

거래소 측은 "2013년 대량 민원 발생의 원인이었던 STX팬오션 및 동양그룹 관련 사태가 진정 추세를 보이면서 민원·분쟁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TX팬오션과 동양그룹 계열사 관련 사건을 제외한 민원·분쟁은 지난해 2090건으로 전년 1927건보다 8.5% 증가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전체 민원·분쟁 가운데 부당권유 유형이 3574건(6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은 726건(13%)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원금비보전형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가 증가하면서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과 분쟁이 늘어났다. ELS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분쟁은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민원·분쟁 사건 중 증권·선물회사의 자체 해결 비율은 지난해 29%로 최근 5년래 가장 낮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ELS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기타 대량 민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분쟁예방을 위한 증권·선물회사의 자발적인 노력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증권업계 올 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국내 경기 기대 미치지 못해"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내린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6곳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선 삼성증권은 지난달 19일 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0%로 낮춰 낙폭이 가장 컸다. KDB대우증권은 기존 3.5%에서 3.3%, 현대증권은 3.6%에서 3.4%, 신한금융투자는 3.6%에서 3.1%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대신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각각 4.0%에서 3.7%, 3.8%에서 3.5%로 전망치를 변경했다. 이 가운데 KDB대우증권과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곳은 지난달 23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를 발표한 이후에 전망치를 새로 썼다. 아직 4분기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망치를 내리는 증권사가 더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처럼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한 배경은 국내 경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은 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쳐 9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4분기의 저조한 실적으로 연간 성장률은 3.3%를 나타냈다.

나중혁 현대증권 연구원은 "4분기 발표를 보면 정부 지출, 민간 소비 등 전반적인 지표가 예상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며 "이 경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한지기자

가격 내린 수소차 충전소는 달랑 11곳

현대차 '투산ix' 1억5000만원서 8500만원 인하… 인프라 미비 등 콘셉트카 같은 상황

현대자가 2일 투싼ix 수소연료전지차(FCEV)의 판매 가격을 확 낮춰 시장의 관심을 끌려하고 있지만 실상 저유가와 충전인프라 미비로 대중들에겐 아직 콘셉트카 같은 상황이다. 현대차는 투싼ix 수소차를 기존의 1억5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FCEV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만드는 전기로 모터를 돌려 달리는 친환경차다. 주행 중에는 이산화탄소나 배기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물만 배출된다.

특히 투싼ix FCEV는 현대차가 독자 개발한 100kW의 연료전지 스택과 100kW의 구동 모터, 24kW의 고전압 배터리, 700기압(bar)의 수소저장 탱크를 탑재했고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시동이 가능하다.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12.5초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견줄 수 있는 가속과 동력 성능을 갖췄다.

한번 수소를 충전할 경우 주행가능 거리는 415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수준이다.

현대차가 FCEV의 가격을 내린 것은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 수소연료전지차의 대중화를 확산하려는 조치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가 FCEV를 구입할 경우 6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이번에 현대차가 가격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모도 이에 맞춰 2750만원선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차 값이 크게 내리면서 지자체는 5750만원선에서 차를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온전히 85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벽이 높다.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서울 양재동과 서울시 상암동, 경기도 용인 등 전국에 11곳에만 설치돼 있다. 2025년까지 200개 설치가 목표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는 수소차를 사더라도 충전소를 찾아 전국을 헤맬 수밖에 없다.

수소를 한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정도이며, 충전 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2만~3만원 수준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충전소가 많아야 수소차 판매가 늘고 매출 증대가 다시 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며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공동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것이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투싼ix FCEV의 국내 판매량은 광주시 5대를 포함해 10여대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지원 제도와 인프라가 잘 갖춰져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대당 200만~300만 엔의 보조금(지방 정부 별도)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관공서의 공용차로 수소연료전지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소도 올해 100기에서 2025년까지 1000기, 2030년까지는 3000기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약 670만 엔(약 6217만원)에 출시된 도요타의 수소연료전지차 미라이(4인승 세단)가 출시 한달 만에 애초 판매 목표(400대)의 4배에 육박하는 1500대 계약됐다. 경쟁력있는 가격뿐만 아니라 수소 인프라가 뒷받침됐기때문에 가능했다.

/김승호기자 fuelfimetroseoul.co.kr

SM5 노바·티볼리 판매 '급피치'

지난달 완성차 판매 71만7332대… 현대차만 뒷걸음질

지난달 완성차 5개사의 국내 판매량이 지난해 1월과 비교해 5% 증가했지만 내수 시장에선 1위 업체인 현대자동차가 나홀로 뒷걸음질 쳤다.

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는 전년 동월보다 5.0% 늘어난 총 11만1620대로 집계됐다.

내수시장에서는 총 11만1620대가 팔려 작년 1월보다 판매량이 5.0% 늘었으나, 수출 물량(60만5712대)이 4.8% 줄어든 탓에 전체 판매량이 후퇴했다.

내수에서는 현대차(5만4134대)만 2.2% 뒷걸음질쳤을 뿐 기아차(3만6802대), 한국GM(1만1849대), 르노삼성차(5739대), 쌍용차(6817대)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각각 SM5 노바, 티볼리가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며 신차 효과를 톡톡히 본 덕택에 각각 27.5%, 25.2% 판매량이 늘어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달 중순 화제를 모으며 출시된 티볼리는 출시 보름여 만에 2312대가 팔려 르노삼성차의 QM3(1642대), 한국GM의 트랙스(713대)를 큰폭으로 따돌렸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내수 판매 부문에서 1위를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기아차와 한국GM의 내수 판매는 각각 8.2%, 5.0% 늘었다.

반면 완성차 5개사는 수출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든 60만5712대에 그치며 새해를 저조하게 출발했다.

르노삼성차는 닛산 로그(총 8380대)의 물량 증가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2.5% 신장한 1만1045대의 자동차를 해외시장에서 팔며 선전했으나 나머지 업체의 수출은 신통치 않았다.

특히 쌍용차는 루블화 가치 급락으로 러시아 수출을 축소함에 따라 수출 물량이 42.7% 급감한 3504대로 줄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해외 공장 근무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판매가 각각 7.3%, 3.3% 감소한 33만5455대, 21만5972대에 머물렀다. 한국GM 역시 쉐보레의 유럽 철수 등의 여파로 수출 물량이 7.0% 줄어든 3만9736대에 그쳤다.

지난해 최하위에 머물렀던 쌍용차는 신주문 7000대를 넘긴 티볼리의 인기에 힘입어 르노삼성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지난달 내수와 수출을 모두 합친 완성차 판매량은 71만733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르노삼성을 제외한 완성차 4사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

현대차는 작년 1월(41만3390대)보다 6.7% 줄어든 38만5868대를 팔아 작년 9월 이후 4개월 만에 월 40만대 아래로 떨어졌다. 기아차는 1.8% 감소한 25만2774대, 한국GM은 3.8% 줄어든 5만1585대, 쌍용차는 11.3% 내려간 1만321대에 그쳤다.

르노삼성은 1만6784대를 팔아 전년 대비 150% 증가했다. QM3 판매 호조 및 로그 수출이 늘어난 효과다. QM3와 로그 물량만 1만여대 늘어났다.

모델별로 보면 현대차의 1t 트럭 포터가 8860대 팔려 새해 첫 베스트셀링을 기록했다. 쏘나타(6907대), 싼타페(6689대), 그랜저(6613대), 쏘렌토(6338대), 모닝(5780대), 스파크(5228대)가 뒤를 이었다.

/이승용기자

복합할부 금융 수수료 갈등 현대차·삼성카드 공방 계속

지난해부터 불거진 현대자동차와 신용카드사 간 신차 수수료 공방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차는 현행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이 높아 체크카드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삼성카드를 중심으로 한 카드사는 역공에 나선 형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자동차업계로부터 차값의 1.9%에 해당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캐피탈사와 나누는 구조다.

소비자가 매달 캐피탈사에 차값을 나눠 갚는 방식은 기존 자동차 할부 프로그램과 같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카드사가 끼지 않은 자동차할부로 차를 팔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 비용이 나가는 셈이다.

이에 현대차는 신용공여기간을 놓고 카드사들과의 협상에 나섰다.

신용공여기간은 소비자가 카드로 물건을 사면 카드사가 대금을 제조사에 미리 갚아준 날로부터 소비자가 카드값을 갚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통상적인 신용카드 결제에서 카드사의 신용공여기간은 한 달 정도지만 복합할부는 2~3일에 불과하다.

때문에 현대차는 복합할부 신용공여기간이 일반 결제의 10분의 1이니 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인 1.5%선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카드는 수수료율을 1.85%에서 1.5%로 낮췄고, BC카드는 가맹점 협상이 결렬돼 복합할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현대차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삼성카드는 현대차의 논리를 역이용해 신용공여기간을 한 달 수준으로 늘린 새 복합할부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히며 반격에 들어갔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비롯한 자동차업계는 즉시 재반격에 나섰다.

협회는 "복합할부는 카드사가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상당 부분 할부금융사에 전가해 카드사에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비용이 낮게 발생하는 상품이다. 카드사가 신용공여기간을 연장해도 자동차업계로부터 부당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구조는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 달 가맹점 계약 만료를 앞둔 현대차와 삼성카드는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현길기자

대한항공, 정기 임원인사

대한항공은 2015년 정기 임원 인사를 2일 단행했다.

사측에 따르면 승진 임원인사 규모는 모두 32명으로 정윤동 상무 등 2명을 전무, 하은용 상무보 등 14명을 상무로 각각 승진시켰다.

또 상무보 16명을 신규 선임했다.

이번 임원 인사의 특징은 각 사업 부문의 영업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에 따라 실시했다고 사측은 전했다.

소통 활성화를 통해 기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적재적소의 배치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내실을 다지고 변화를 주도하며 수익 증대와 내부 관리시스템 개선, 기업문화 쇄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원 승진 인사 명단

△전무(2명) 정윤동 노삼석 △상무(14명) 하은용 박생원 손서신 주규연 이규한 박정우 송보영 문주봉 이동수 송성복 권오준 제충훈 서준원 장현주 △상무보(16명) 송경연 고인수 최우준 한수범 이진호 박준건 주우남 강두석 권혁목 이동열 박허돈 이철주 남기승 송원익 이석무 조숙현

/이상길기자 rogman

이재용 B2B·B2C 투트랙 전략 나서나

안정적 수익구조·신흥국 개척 집중

이재용(사진) 부회장 체제의 삼성전자가 올해 다양한 변화를 꾀한다.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와 미래먹거리 창출, 신흥시장 공략이다.

지난해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 삼성전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간 거래(B2B) 사업 확대에 집중하는 한편 신흥시장은 기업과 소비자 거래(B2C)를 확보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북미 지역 시스템에어컨 유통업체인 콰이어트사이드를 9월엔 캐나다 모바일 프린팅 업체인 프린터온을 인수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브라질 1위 프린터 유통업체인 심프레스 코메르시우를 사들이며 적극적인 유통망 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심프레스 인수는 삼성전자에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브라질 수도 상파울루에 본사를 둔 심프레스는 중남미 지역의 금융기관·관공서 등 1700여곳에 프린트와 잉크, 용지 등을 공급하는 곳이다. 덕분에 한번 궤도에 오르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두고 사물인터넷(IoT)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바로 콰이어트사이드 인벤과 프린터온을 인수했다는 점을 들어서다.

비록 심프레스의 경우 콰이어트사이드와 프린터온처럼 B2B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이 역시 B2B와 사물인터넷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TV, 2020년에는 모든 제품을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B2B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최적의 디바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수익구조 구축과 함께 신시장 개척에도 집중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아프리카 IT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프리카 시장은 스마트폰과 TV 등 전자제품 신흥시장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곳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위치한 사회동란 주거단지 '블리칸 파크'에 28채의 주택을 건립,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전달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해비타트와 협력해 전기가 없어 IT교육이 불가능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라몰레셰 초등학교에 '태양광인터넷스쿨(SPIS)'을 전달하는 등 남아공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즉 미래를 보고 아프리카 현지화 전략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 시장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향후 20년 안에 2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관측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다.

아프리카 시장을 두고 전자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 등에 가려졌지만 인구나 경제 규모를 보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B2C 사업으로 지금의 삼성을 이끌어온 이건희 회장과 달리 B2B와 B2C의 투트랙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경영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아우디 홍보대사에 배우 이진욱·최시원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는 2일 배우 이진욱과 슈퍼주니어 멤버이자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최시원(사진)을 2015년 아우디 코리아 브랜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아우디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진욱과 최시원은 앞으로 1년 간 아우디 코리아의 공식 행사 참석, 해외 주요 모터스포츠 경기 참관 등 홍보대사로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간다. 또한 활동 기간에 이진욱은 고성능 모델인 '아우디 RS 7 스포트백'을, 최시원은 미드십 스포츠카인 아우디 R8 V10 스파이더를 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게 된다.

요그 디잇출 아우디코리아 마케팅 이사는 "이진욱과 최시원은 고급스러우면서 세련된 이미지, 무엇보다 최고의 실력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최고의 엔터테이너이자 예술가"라며 "다이내믹 프레스티지 브랜드 아우디의 다이내믹함과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fun@

LG전자가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15년형 TV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굿 체인지 굿 찬스'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모델이 LG전자 매장에서 '굿 체인지 굿 찬스' 페스티벌을 맞아 65형 곡면 올레드 TV(65EG9900)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 2015년형 TV 할인 이벤트 진행

LG전자가 국내 TV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LG전자는 내달 2일까지 2015년형 TV를 다양한 혜택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굿 체인지 굿 찬스' 페스티벌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LG 베스트샵, 백화점, 양판점, 대형마트 등 국내 전 판매점에서 TV 구매 고객에게 캐시백과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

대상 모델은 올레드(OLED) TV와 울트라HD TV 등 2015년형 신제품 20여종이다. 올해 TV 신제품에는 스마트TV 전용 플랫폼 '웹OS 2.0'이 탑재됐다. 벽시 기긴 77인치형 울트라 올레드 TV(77EG9700) 구매 고객에게는 20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65인치형 울트라 올레드 TV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캐시백 또는 42인치형 클래식 TV를, 55인치형 제품을 선택하면 50만원의 캐시백 또는 32인치형 클래식 TV를 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색재현율과 명암비를 높여 화질을 한층 강화한 65인치형 울트라HD TV(65UF9500)도 새롭게 출시했다. 구매 고객은 59만원의 캐시백이나 복고풍 디자인의 32인치형 클래식 TV, 미니빔TV 중 하나를 사은품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재철 LG전자 한국HE마케팅FD담당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압도적인 화질과 스마트 기술을 거실에서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성현기자 jgkar@

한화, 자매결연 마을 어르신 초청 효도관광

한화는 1사1촌 자매결연 마을(강원도 정선군 마천리) 어르신 50명을 초청해 강원도 속초에서 1박 2일간 효 관광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대포항, 영랑호 등의 속초 지역명소 관광과 온천욕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한화는 도·농 교류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자 2013년 9월 마천리와 1사1촌을 맺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신입사원 농촌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현정기자 koman@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2/10 2PM. LAST TICKET OPEN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3.29 ·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홍경수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여진

2일 충남 아산시 중부도시가스 본사에서 열린 완료보고회 이후 김병표 중부도시가스 사장(사진 가운데)과 주식회사 SK C&C Industry사업2본부장(사진 왼쪽에서 ...)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 사고 제로 만들기

SK C&C 모바일 기반 운영 체제 선보여

SK C&C가 가스 사고 제로 달성을 목표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모바일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가스 안전 관리 체제를 선보였다.

SK C&C는 2일 충남 아산시 중부도시가스 본사에서 김병표 중부도시가스 사장과 주식회사 SK C&C Industry사업2본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도시가스 지리정보시스템(GIS) 재구축 및 모바일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GIS를 중심으로 SCADA(통합감시제어시스템), ERP(전사적자원시스템), EOCS(급착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모바일 기반의 현장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해 '가스 사고 Zero'의 안전한 도시가스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SK C&C는 가스 배관을 중심으로 주요 지상·지하 시설물 도면과 지형·지적 정보에 항공영상지도 등을 더해 도시가스 공급 지역 어디든 주변 지형지물과 연계된 현실감 있는 가스설비 및 배관망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에 복잡한 가스 배관망 내외부 이상 여부를 측정해 파손 등의 원인으로 인한 가스 누출을 감지, 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배관망 해석시스템의 배관망 해석 모델 생성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배관망 해석 모델은 가스 배관망 제원 등의 자료와 가스 공급, 사용자 공급관, 압력조정기 등 배관 관련 시설과 발전용, 산업용, 일반용,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외부 시설 조건을 반영해 배관망 내 가스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다. 다양한 배관망 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복잡한 배관망 내외부의 각종 압력을 그래픽으로 분석, 도시가스 배관 이상 유무 등 배관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희준 기자

LG화학 과태료 '0원'… 왜?

인명피해 없어 부과 대상 제외

올해부터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됐다. 30일 여수산업단지의 LG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 포스겐(phosgene)이 누출돼 6명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과태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술한 화관법의 법망을 피했기 때문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관법은 안전에 유해한 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구체화한 법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기업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LG화학의 작년 매출이 22조577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1조1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LG화학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0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포스겐은 화관법에 의해 관리되는 유독 화학물질이 맞지만 LG화학이 사고 직후 20분 만에 신고를 했고 인명피해도 없는 상황"이라며 과태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할 경우,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환경부는 1차 경고조치로 LG화학 공장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비정부기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43) 실장은 "유독가스 누출에도 인명피해만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화관법에 의의를 제기했다. 그는 또 재해 위험이 큰 화학물질 탱크 등을 다룰 때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하는 유해관리계획서 공시 조항 역시 면피성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현 실장은 "기업들이 유해관리계획서를 웹사이트에 공시하는데 이를 찾아보고 산단에서 쓰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은 몇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겐은 나치가 유대인 집단 학살 시 사용한 독가스로 이용됐을 정도로 강한 유독성을 띈 화학물질이다. 흡입하면 피부 자극, 호흡곤란 등 급성증상이 나타나며 수 시간 후에 폐수종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정소연 기자 10sound@metroseoul.co.kr

월 5000원으로 데이터 걱정 끝! SK텔레콤이 데이터 혜택은 늘리고 요금 이용료 부담은 줄인 '안심옵션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옵션 플러스'는 가입 시점부터 6개월 간 데이터를 최대 2배 제공하는 상품이다. /SK텔레콤 제공

KT, ICT 강소기업 손잡고 중국시장 진출

KT가 중국업체와 손잡고 중국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 융합솔루션을 접목한 '스마트 테마파크' 건립에 나선다.

KT는 2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중국 전기전자 영상문화 기업인 정디엔그룹과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오는 5월 개관하는 상하이 인근의 영상 테마파크 '만화원' 내에 KT의 홀로그램 공연장 '케이-라이브'를 구축하고 케이팝을 비롯해 중국스타 콘서트, 중국역사 홀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공동 제작할 계획이다.

KT는 아울러 IoT와 ICT를 활용해 만화원 전체를 스마트 테마파크로 꾸미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작년 1월 서울 동대문에 처음 문을 연 뒤 한류 콘텐츠의 '메카'로 자리잡은 K-live는 출범 1년 만에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뤘다.

KT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YG, HB 엔터테인먼트 등 한류 대표 연계 기획사와는 콘텐츠 협력을, 디스트릭트, 매크로그래프, 딜루션, 쿨 팀티브 등의 중소기업과는 3D 입체영상 홀로그램 시스템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이번 MOU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국 최고 학술기관인 중국과학원이 콘텐츠 기술 교류를 위해 추진하는 '평요우 프로젝트'의 하나라고 KT는 설명했다. /정희준 기자

아이리버 6년만에 흑자 전환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급격히 추락했던 아이리버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이제 재기의 시동을 걸고 있다.

아이리버가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6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아이리버는 2014년 매출액 532억원, 영업이익 15억원, 당기순이익 23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다.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를 달성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만의 기록이다.

이는 아이리버가 과거 대중적인 MP3 플레이어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최근 프리미엄 오디오 기기 브랜드 '아스텔앤컨'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이다. 즉 음악 애호가를 위한 단말기와 콘텐츠로 틈새시장을 파고 들겠다는 전략이 성공한 셈이다.

아이리버는 "지난해 흑자 전환은 전반적인 상품군의 구조 변화를 통해 수익성이 우수한 제품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가능했다"며 "올해는 고음질 오디오 및 음원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리버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애플과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세계 굴지의 MP3 플레이어 제조사였다. 2004년 매출 4540억원을 기록한 아이리버는 시장 점유율 국내 70%, 해외 25%를 지지하며 삼성전자, LG전자 못지않은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애플이 최초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출시하며 추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2014년 최대주주인 SK텔레콤(주)로부터 자금 조달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양성운 기자 ysw@

홈쇼핑, 글로벌 시장 '노크'

성장 '빨간불'→동남아 등 해외서 돌파구 찾기 나서

홈쇼핑업계가 최근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리고 있다. 장기 불황에 성장이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은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세계 1위 홈쇼핑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리며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은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 최대 미디어그룹 아스트로와 함께 현지 홈쇼핑 채널 '고샵(GO SHOP)'을 개국했다. 지난해 2월 합작법인 설립 후 430여만 가구에 하루 24시간 방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다. 이와 함께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5일 이내에 배송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도 구축했다. 고샵에 나오는 전체 상품의 약 60%가 한국 상품으로 일부 대형 가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제품이다.

GS홈쇼핑은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터키 등 7개국에서 합작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외국 합작 홈쇼핑 7곳을 통틀어 취급액 약 1조5000억원을 올릴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배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은 "GS홈쇼핑의 글로벌 홈쇼핑 네트워크가 해당 국가의 건전한 소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수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J오쇼핑은 2004년 중국 2위 미디어 그룹인 SMG와 합작사인 동방CJ를 설립해 중국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중국·인도·일본·태국 등 해외 7개국 9개 지역에서 합작운영 중이다. CJ오쇼핑의 지난해 해외 취급고는 2조원 수준으로 홈쇼핑 업계중 가장 성공적이다.

현대홈쇼핑도 해외 진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시장을 발판 삼아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은 대만 홈쇼핑 시장에서 현지업체와 합작으로 설립한 모모홈쇼핑과 2012년 베트남에서 시작한 홈쇼핑사업 롯데닷비엣을 운영하고 있다.

업계들은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중국에 비해 해외 기업들의 진출 경쟁이 덜 치열하고 각종 규제 등이 적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속 성장하던 홈쇼핑이 최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과 스마트폰 대중화 등으로 본격적인 성장 정체기를 맞고 있다"며 "이에 따라 TV채널을 벗어나 새로운 전략으로 해외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metroseoul.co.kr

GS홈쇼핑 고샵

GS홈쇼핑 제공

신세계百 '바스통' 팝업스토어 열어 입춘(2월 4일)이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이 본점 신관 오픈 100일을 기념해 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캐주얼 정장 전문 브랜드인 '바스통(bastong)'의 팝업스토어를 22일까지 운영한다. 웍스재킷 52만7000~57만2000원, 팩코트 37만2000원, 트렌치코트 47만2000원 등이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오픈마켓 "신학기를 잡아라"

G마켓·11번가 가구 최대 55%, 옥션 노트북 54% 할인

오픈마켓이 신학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가구, 가방, 학용품 등 관련 제품 판촉에 돌입했다.

G마켓은 신학기를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공부방 및 서재 가구를 최대 55% 할인 판매하는 '2015 봄 신학기 가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매년 이맘때 수요가 급증하는 책상·의자·책장 등 대표적인 신학기 가구를 특가에 판매한다.

특히 '위클리 세일' 코너를 통해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차별 이벤트 상품 2개를 선정해 할인가에 선보인다. 또 주차별 특가상품 외에도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신학기 가구를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11번가는 다음달 8일까지 '신학기 일공대전' 내 공부방을 기획해 기획전을 연다. 인기 학생가구를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주요 상품은 '에리제어 의우제이' '소프시스 모바 선반' '5단 학생 책장' 등이다. 또 행사 기간 소프시스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포토 상품평을 작성한 소비자 11명을 추첨해 책상, 의자, 책장, 서랍장 등으로 구성된 공부방 학생가구 패키지를 증정, 공부방을 꾸며준다.

옥션은 다음달 2일까지 '옥션 새 학기 스쿨'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최신형 노트북 등 IT기기를 최고 54% 할인 판매하며 대형 LED모니터, 잉크젯·복합기, 외장하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도 저렴하게 선보인다.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용 가구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김보라기자

지속되는 '홈플러스 범죄'

기자 수첩
김보라
<생활유통부 기자>

'신뢰'와 '믿음'은 기업 경영에 있어 중요한 단어다. 특히 백화점, 마트 등 유통업계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신뢰가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게 유통업계의 공식이다.

그런데 국내 마트 빅3로 꼽히는 홈플러스가 다시 신뢰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신뢰를 깬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범죄' 수준이다.

지난해 경품 사기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홈플러스는 다시 경품 사기 행각과 함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측은 보험서비스팀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경품행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눈속임이자 미끼로 활용됐다.

여타 경품행사의 경우 응모권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만 적으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했고, 적지 않은 고객은 경품추첨에서 배제됐다. 당첨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고 하고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당첨자가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하면 약속한 경품 대신에 다른 물품을 주고 끝낸 경우도 있었다.

경품행사에 기입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기기 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깨알보다 작은 1㎜ 크기 글씨로 기재해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이 불구속됐지만 불구속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시중에 유출된 고객 신상 정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분노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불매운동까지 벌일 조짐이다.

홈플러스는 반복되는 경품 사기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자체 브랜드 제품 부실과 노사 문제 등 도덕성 문제로 지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짝퉁 나이키'로 원성을 사기도 했다. 직원 윤리교육 강화와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강화 등을 약속하고 공식 사과하고 있지만 공허한 소리로 들린다.

"죄송하다"며 계속 고객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홈플러스. '직원들의 개인 비리'라고 선을 긋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홈플러스의 기업 윤리인 '착한 기업'은 무색해져 이제 '악덕 기업'으로 전락했다. 홈플러스가 환골탈태하지 않는 이상 한국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롯데칠성 '참두', 전년 대비 18% 성장

"일반·식사대용 세분화"

롯데칠성음료의 두유 브랜드 '참두'가 지난해 두유시장 침체 속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활로를 찾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참두'·'참두 뉴트리빈'은 지난해 누적 판매량 약 1520만 상자, 총 2600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 이는 두유 인기가 줄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으로 두유시장의 매출이 정체된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30대를 타깃으로 '한끼 영양을 그대로 담은 두유'라는 콘셉트와 함께 참두 캐릭터인 '빈이'를 앞세운 박자 이벤트 등을 벌이며 제품 인지도를 높인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향후 국내 두유시장을 일반 두유와 식사대용 두유로 세분화해 공략, 5년 내에 시장점유율을 10%선으로(매출 기준 약 400억원)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석지헌기자

봄, '립스틱'으로 생기있게

화장품 업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봄 신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특히 봄에 인기가 많은 컬러를 중심으로 립 관련 신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리얼 큐피드 루즈'를 선보였다. 그동안 메이크업 신제품과 베이직한 패션 아이템을 매칭해 뷰티 트렌드를 이끌어왔다면 이번 봄에는 '일상에서 느끼는 순간의 감성'에 주목해 리얼웨이 메이크업 캠페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즌 트렌드 컬러인 핑크 계열의 '설레는 블라썸 핑크'를 비롯해 10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틴트처럼 은은한 발색부터 립스틱처럼 선명한 표현까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에스쁘아는 매년 봄 유행하는 파스텔 컬러를 에스쁘아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메이크업 컬렉션 '파스텔 펀치'를 한정 출시한다. 아이섀도우, 블러쉬, 립스틱, 네일 총 4종으로 구성됐으며 핑크, 오렌지, 퍼플 등 파스텔 컬러를 패키지에도 반영했다.

에뛰드하우스도 봄 트렌드 컬러 20가지로 구성된 '컬러 인 리퀴드 립스'를 내놓았다. 사랑스럽고 발랄하게 연출해주는 봄 트렌드 핑크와 오렌지를 중심으로 레드, 로즈, 코랄 계열의 총 20가지 컬러로 준비됐다. 해당 제품은 출시에 앞서 온라인 몰 브리핑 때 일부 색상은 일시 품절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봄, 여름 시즌에는 자연스러운 피부 메이크업과 립스틱처럼 발색은 되지만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생기발랄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이니스프리 제공

'라면' 지고 '간편밥' 뜬다

대상 컵밥·풀무원 냉동밥 매출 껑충

오랜 세월 국민 먹거리로 자리 잡았던 라면의 자리를 '간편밥'이 위협하고 있다. 컵밥·볶음밥 등 밥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라면 시장은 2013년 2조원대에서 지난해 1조9700억원 규모로 축소된 반면 쌀을 활용한 조리식품 소비량은 2012년 7만4000t에서 지난해 9만8000t으로 32% 늘었다.

밥 간편식 소비가 늘어난 것은 밀가루 면보다는 쌀밥이 더 건강하다는 인식과 함께 1인 가구·맞벌이 부부 증가로 요리하는 인구가 줄어든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밥을 활용한 간편식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대상 청정원은 2013년 '청정원 정통 컵국밥'을 출시해 '컵밥'이라는 식품 카테고리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후 라면처럼 끓여 먹는 국밥과 밥 짓는 물을 차별화한 볶음밥 등을 선보이며 밥 간편식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올 1월에는 냉동 나물밥 3종을 새롭게 내놨다.

대상은 첫 해 컵밥 매출 46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는 두 배 이상이 증가한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매출 역시 두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CJ제일제당은 '간편식의 원조' 햇반과 차별화된 제품으로 밥 간편식 시장을 공략 중이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8월 선보인 '프레시안 스팸 볶음밥' 2종은 매월 5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 제품을 레시피 쿠킹클래스 마케팅과 연동해 올해 100억원대 대형 히트 브랜드로 육성시킨다는 목표다.

풀무원은 밥 간편식 가운데 냉동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0월 간편 냉동밥 시장을 연 풀무원은 지난해 3월 '봄나물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곤드레 보리밥, 현미 취나물솥밥 등 2종은 3개월 만에 30만개 이상 팔리며 냉동밥 매출을 전년 대비 60% 신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후 편의성을 강화한 컵 용기 형태로도 출시됐다.

풀무원은 최근 퀴노아, 렌틸콩 등을 넣은 영양밥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서예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대용량' 플레인 요거트 독주

간편 식재료로 각광 — 매일·남양 등 관련 상품 주력

유제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떠먹는 플레인 요거트 제품만 3년 평균 30% 성장률(링크아즈텍 기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용량 요거트의 경우 건강식을 찾는 트렌드와 모디슈머(Modify+Consumer) 열풍이 맞물리면서 다른 식재료와 섞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2일 매일유업에 따르면 2013년 5월 출시된 대용량 플레인 요거트 '매일바이오 플레인'은 지난해 14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그보다 약 160% 성장한 380억원 목표로 하고 있다.

매일바이오 플레인은 당을 첨가하지 않은 대신 생우유 95%에 유고형분을 더해 달지 않으면서도 담백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대용량(450·900g)이라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고, 어떤 메뉴와도 부담 없이 어우러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매일유업 측은 예상하고 있다.

남양유업 역시 지난해 초 대용량 제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양유업의 플레인 요거트 제품 '밀크 100'은 1인용 제품(85g)에 10배가 넘는 870g으로 지난해 8월 출시 이후 연매출 25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는 100억~150억원이다. 남양유업 밀크 100은 1등급 국산 원유를 유산균만으로 발효시킨 순수 플레인 요거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은 풍미를 위해 부분 무첨가를 선택한 반면 이 제품은 '완전 무첨가'로 소비자들의 건강과 입맛을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용량 플레인 요거트 인기에 풀무원다논과 동원F&B은 지난해 11월 각각 '덴마크 플레인(400g)'과 '덴마크비아 건강한 생플레인(450g)'을 내놨다.

풀무원다논 관계자는 "현재 제품을 롯데마트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며 "향후 매출 추이를 지켜보고 유통망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원F&B 역시 출시된 지 얼마 안돼 매출을 공개할 수준은 아니지만 관련 카테고리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올해와 내년에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지원기자

M&A 큰손 이랜드·형지, '에스콰이아' 군침

이달 중순 본입찰 — 인수의향서 4곳 제출

토종 제화 에스콰이아를 보유하고 있는 EFC(에스콰이아 패션컴퍼니)가 매물로 나온 가운데 이랜드와 형지가 뛰어들었다. M&A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이랜드그룹 박성수 회장과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총 4곳이 EFC에 대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중 2곳이 이랜드와 형지그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와 형지는 거침없는 M&A로 사업을 확장해왔기 때문에 누가 에스콰이아를 가져갈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본 입찰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이랜드는 인수한 해외 브랜드를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시키고 있다.

지난해 중국 상해와 북경에 스포츠브랜드 케이스위스의 모델샵을 잇따라 오픈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장을 확산, 오는 2018년까지 250개 매장을 열고 200억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로 키울 계획이다.

이랜드는 이 외에도 뉴발란스, 푸마 등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만다리나 덕, 라리오, 코치넬리 등 잡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형지그룹 역시 M&A로 종합 패션회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브랜드 까스텔바작의 315개 국내 상표 마스터권을 인수하면서 골프웨어 시장에 진출했으며 앞서 스위스 아웃도어 와일드로즈의 아시아권 권도 인수했다. 지난 2013년에는 에리트베이직을 인수하며 교복 시장에 뛰어들었다.

형지 측은 패션이나 유통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에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혀 향후에도 M&A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패션 시장의 판매 채널이 다양해졌고 SPA(제조·유통일괄형) 브랜드 등 대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며 "다양한 상품을 한 매장에서 판매하는 최근 흐름에 따라 인프라를 갖춘 제화나 잡화 등 다양한 업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CJ, '알래스카 연어' 설 광고

CJ제일제당은 설을 앞두고 '알래스카 연어'의 신규 TV 광고를 론칭하고, 차별화된 선물세트를 선보이는 등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알래스카 연어를 '스팸'에 이은 두 번째 주력 제품으로 육성하고,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에만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배우 이서진과 손호준을 모델로 한 '상사세끼 CJ 알래스카 연어' TV 광고를 선보였다.

'정관장 천녹삼' 출시

KGC인삼공사는 프리미엄 녹용을 함유한 '정관장 천녹삼'(사진)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정관장이 엄선한 6년근 홍삼에 프리미엄 녹용, 국내산 참당귀, 황기 등 천연 생약성분을 더했다. 정관장만의 녹용농축액 제조기법을 적용해 홍삼과 녹용의 깊은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케라시스 '쿨모닝' 샴푸

생활뷰티기업 애경의 프리미엄 헤어클리닉 브랜드 케라시스에서 쿨모닝(사진) 샴푸를 출시했다.

쿨모닝 샴푸는 강력한 멘톨성분이 함유돼 과도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지치고 민감해진 두피를 시원하고 상쾌하게 가꿔준다. 쿠팡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픈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성인 절반 손발톱 무좀 겪어

한국메나리니 실태 조사 · 관리는 '낙제점'

국내 성인 2명 중 1명은 손발톱 무좀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메나리니는 정보분석기업 닐슨 컴퍼니 코리아와 함께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손발톱 무좀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59명(45.9%)은 손발톱 무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또 무좀 경험자 중 75.2%는 1~3개의 손발톱에서 무좀 증상이 나타났으며 20.7%는 4~7개 손발톱에서 무좀 증상이 발현됐다.

하지만 관리 실태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손발톱 무좀은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고 전염의 위험이 높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지만 손발톱 무좀 증상이 생겼을 때 청결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손발톱 무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61%)을 기록했다. 게다가 4명 중 1명은 의약품이 아닌 손발관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매니큐어 등으로 증상을 숨긴다는 응답자도 15.3%나 됐다.

손발톱 무좀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 정보의 부족(40.6%)이었으며 완치가 어려워 치료를 외면한다는 답변(37.9%)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손발톱 무좀은 감염 면적이 50% 미만일 때는 손발톱에 직접 바르는 국소 치료제를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증상이 심하고 손발톱 다수에 감염됐다면 전문의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편 한국메나리니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등을 통해 무좀 환자에게 치료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손발톱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함양과 올바른 예방·치료법을 알리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귀검사 평생 3번은 필수

1·40 66세때 받아야

청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스스로 난청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기적인 청력검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기적인 검사가 어렵다면 생후 1년과 생애전환기인 40세와 66세에 청력검사를 해야 한다.

먼저 태아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른과 비슷한 수준의 청력을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생후 3개월 이내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청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어떠 난청이 찾아오면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은 물론 언어학습을 통한 지능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생후 1년 때 다시 한 번 청력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노화가 시작되는 40세에도 청력검사가 필요하다. 노화가 시작되면 청력이 떨어지는데 청력의 노화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된다. 게다가 난청이 진행되고 있어도 자신이 난청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중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인 40세에는 보다 정밀한 청력검사를 통해 자신의 귀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60대에도 청력검사를 해야 한다. 난청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애전환기(66세) 건강검진 항목에도 포함될 만큼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며 난청이 심한 노인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노년층의 난청은 검사 후 보청기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데 교정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보청기로도 교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문경래 이어케어네트워크 소리귀클리닉 원장은 "청력은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귀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청력검사를 받고 그에 맞는 재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푸짐한 힐링 선물 받으세요"

로빈훗 티켓·리시리 샴푸·길벗도서 등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2월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힐링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먼저 손상된 모발 회복에 효과적인 리시리 샴푸&헤어크림을 선물한다.

샴푸에는 3가지(미네랄·아미노산·후코이단) 영양성분이 들어간 천연다시마엑기스가 100% 배합됐으며 50여 종의 천연성분이 포함된 헤어크림은 트리트먼트·오일·에센스 크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유준상·엄기준 규현 등 인기와 실력을 두루 갖춘 배우들이 출연한 화제의 뮤지컬 '로빈훗' 티켓도 증정한다.

로빈훗은 숲의 도적떼를 규합해 정의를 되찾으려는 로빈훗과 그의 도움을 받아 진정한 왕이 되려는 필립 왕세자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길벗출판의 추천도서인 '가족이 건강해지는 사계절 해독밥상'과 '나는 세계 역사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를 준다.

'해독밥상'은 독소 흡수를 최소로 하면서 몸 안의 해독 기능을 최대로 활성화시켜주는 요리 등 몸 안의 독을 없애는 135개의 요리를 소개한다. '비즈니스를 배웠다'는 세계 2위 미니프린터 업체 빅솔론의 해외영업부장인 저자가 세계전쟁사를 탐구하며 거울로 성장한 이야기로 방대한 역사 지식과 실전비즈니스 노하우를 담았다.

/박지원기자 пБЙ

겨울철 소아 중이염 주의하세요

예방이 최선—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겨울이 되면 중이염을 앓는 어린 아동이 많아진다. 이에 신승희(사진)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에게서 소아 중이염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사실 중이염은 생후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3세까지 약 70%의 소아가 적어도 1회 이상 급성 중이염을 앓는다고 알려져 있다. 코의 뒤쪽 부분인 비인강과 중이를 연결하는 관인 유스타키오관(이관)이 성인에 비해 짧고 수평으로 있어 세균이 쉽게 중이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도 감염으로 중이염이 생기기도 하며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만성 중이염으로 분류한다.

또 중이에 염증과 함께 고름이 차면 급성 중이염을 의심할 수 있다. 아이가 귀의 통증을 호소하고 발열과 같은 증상 없이 TV 볼륨 등을 크게 하거나 말을 자주 되묻는 경우에도 중이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중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기를 막아야 한다. 보육시설과 집안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자주 손을 씻어야 한다.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인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제거제 등은 중이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적어도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좋으며 젖병을 사용한다면 아이를 눕힌 채 우유를 먹이지 말아야 한다.

신 교수는 "아이들은 중이염이 생겨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부모가 중이염을 발견할 때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이다. 평소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시키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사랑을 연주합니다"

14일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 열려

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MPO)가 음악을 통한 나눔을 실천한다.

MPO는 오는 14일 서울시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한미약품 후원으로 제3회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를 전석 무료 초청공연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소외계층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MPO의 9번째 정기 공연이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시작으로 베토벤의 '로망스 2',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나는야 거리의 만능 일꾼' 등이 연주된다.

또 빛의 소리 희망기금 지원으로 결성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어린이 합창·합주단인 '어울림단'의 오프닝 공연과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 바리톤 서정학 등의 협동 공연도 무대에 오른다.

유권 MPO 단장은 "음악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 깊은 콘서트를 매년 개최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음악활동이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MPO는 서울대 의대 관현악단 출신의 의사들이 모여 1987년 창단한 연주단체로 빛의 소리 나눔콘서트 등 다양한 자선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건설업계, 해외시장 악몽 계속되나

대림산업 해외서 발목 잡혀 적자전환
최대 실적 건설사도 안방 밖서는 손실

건설사들의 지난해 실적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는 키웠지만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은 뒷걸음질 치며 2013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연출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림산업은 지난 4분기 영업손실 2227억원, 순손실 3585억원을 냈다. 이로써 지난 한 해 2703억원의 영업손실과 441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대림산업은 앞서 2013년에도 해외 사업장에서 발목이 잡혀 396억원의 저조한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다.

이번 적자의 원인도 4분기 사우디와 쿠웨이트에서 발생한 약 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있다. 현지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하도업체 생산성 저하에 따른 공기지연과 공기준수를 위한 비용 증가 등의 여파가 컸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우디 현장들은 올 상반기 중 공기가 막바지로 이어져 추가적인 비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어려워도 올해 대부분 준공되는 만큼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3년 실적 발표 당시에도 대림산업이 추가적인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터라 이번 해명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2013년 5359억원의 해외 플랜트 사업 부실을 털면서 더 이상의 손실은 없다고 예기했지만 지난 3분기 3364억원, 4분기 3907억원 등 3번 연속으로 1조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보고서를 통해 "사우디에서의 추가 부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Maaden Ammonia 공사는 계약시점이 사우디 이민 정책의 변화 이후여서 원가의 변동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웨이트의 경우에도 부실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계약 잔액이 남아 있는 중동(1조원)과 중국 필리핀(1조9000억원)에서의 계약 시점, 과거 실적, 도급 완가 계상 내역 등을 기초로 판단할 때 수익성이 해당 경직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 영업이익(4155억원)을 거두며 흑자로 돌아선 대우건설도 해외에서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영업이익은 매 분기 1000억원 안팎씩 달성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순이익은 상반기 957억원에서 하반기 116억원으로 급감했다. 해외사업 손실이 반영된 탓이다.

대우건설은 3분기와 4분기 오만,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에서 2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우건설의 해외부문 GPM(매출 총이익률)은 2%였다. 13.9%를 기록한 주택부문과 대조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역시 지난해 63.5% 증가한 569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4분기에는 54억원 순손실을 봤다. 사우디 쿠라야 복합민자발전소 사업의 공기가 지연되면서 1500억원(추정치)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이 원인이 됐다.

현대건설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어닝쇼크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청구공사가 많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3분기 미청구공사는 4조7578억원으로 2013년 먼저 해외발 어닝쇼크를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2조5009억원), GS건설(2조2753억원), 대우건설(1조6245억원)의 2~3배 수준이다.

/박선옥기자 pso8820@metroseoul.co.kr

자양4구역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분양

삼성물산이 서울 광진구에서 2015년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오는 3월 광진구 자양4재정비촉진구역에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4층 지상 29층 2개동 전용면적(이하 동일) 59~102㎡ 아파트 264가구와 31~65㎡ 오피스텔 55실로 구성된다. 이중 아파트는 84㎡ 109가구와 102㎡ 20가구 등 12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오피스텔은 51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도보 5분 거리이며 자양로와 강변북로, 잠실대교, 청담대교 등의 도로망을 갖췄다. 뚝섬한강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스타시티몰, 롯데백화점, 건국대병원, 광장문화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양초, 건국대학교 사대부속 중·고교가 통학권 내 있다.

삼성물산은 고급 주거단지의 이미지에 걸맞게 내부 상품을 고급화하는 한편, 실속까지 잡겠다는 각오다.

우선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2개의 주동을 배치해 각 동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저층부 석재마감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할 예정이다. 내부는 가변형 벽체 설계로 입주민 스스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지하에 세대창고를 제공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으로 공용관리비를 아낄 수 있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에는 소비전력이 적은 LED 램프를 사용한다. 또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들의 대기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포스코건설 송도 첫 부동산 투자이민 유치에 한 발짝 포스코건설이 중국인 투자자와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분양 가계약을 맺으며 첫 투자이민 유치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31일과 1일 이틀간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에서 차이나데이(China Day) 행사를 개최해 50여명의 중국인들과 투자상담을 진행한 결과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1세대와 그린워크 3차 아파트 1세대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제공

8개 시·도 월세값 2개월째 '맴맴'

수도권은 2013년 4월 이후 22개월째 하락

전국 주거용 부동산의 월세가격이 2개월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1월 8개 시·도 월세가격이 전월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수도권은 0.1% 뒷걸음질치며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보합을 기록한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씩 하향조정됐다. 서울의 경우 월세 공급 증가에도 학군 수요가 뒷받침됐으나 경기와 인천은 수요 부진이 계속됐다.

지방광역시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부산·울산이 보합세를 연출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 원룸 신축 등의 여파로 공급이 늘고 있지만 전세 가격 상승으로 수요도 증가하며 수급 균형을 보이고 있다. 대구만 0.1%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만 0.1% 내리고 아파트·단독·오피스텔 등은 보합으로 조사됐다.

/박선옥기자

서울 전세금이면 경기 아파트 1채 사고도 남아

평균 5000만원 차

서울 아파트 전셋값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1채를 사고도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4047만원으로 2년 전 보다 6109만원, 4년 전 보다는 9492만원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억9263만원으로 서울 전셋값 보다 4779만원이 더 낮았다.

지난 2013년 1월만 하더라도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이 2억7938만원, 경기도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8573만원을 기록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의 가구당 전세가격은 2억4555만원, 경기도의 가구당 매매가격은 2억9833만원이었다. 당시 서울의 전세 세입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사려면 5000만원 이상 돈을 보태야 했다.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과천(6억6028만원) ▲성남(5억596만원) ▲용인(3억6533만원) ▲의왕(3억4659만원) 등 4곳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을 하회했다.

서울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은 매매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의 입주량 감소, 재건축 이주 등이 맞물려 최악의 전세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연초부터 매수 전환 움직임이 늘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1%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키로 하면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하늘기자 lumos0104@

metro entertainment

"첫 베드신, 부담없이 편안했다"

"지난 10년 동안 배우로 일하는 순간민큼은 늘 즐거웠어요. 힘든 일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일할 때만큼은 즐거웠기에 비틸 수 있었죠. '강남 1970'은 30대를 시작하는 첫 작품인만큼 배우로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배우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고 싶어요."

연예계에서 기다림은 필수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언젠가 돌아오기 마련이지만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2005년 KBS2 예능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로 연예계에 발을 내디딘 이연두(30)에게도 지난 10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드라마와 뮤지컬, 연극을 통해 차곡차곡 커리어를 쌓아온 그는 배우 10년만에 '강남 1970'으로 미침내 영화에 데뷔, 노력의 기회를 만났다.

강남 땅의 개발이 본격화한 197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영화 '강남 1970'에서 이연두는 김래원이 연기한 백용기의 연인이자 용기의 두목의 정부이기도 한 여인 주소정 역을 맡았다.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용기에게 변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극 전개에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다. 이연두는 "남자 연위지만 확연히게 소정은 매력적이었다"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오디션을 통해 주소정과 만난 이연두는 시나리오 속 이야기는 물론 시나리오에 담지 않은 이야기까지 상상하며 주소정의 캐릭터를 만들어갔다. 가장 신경 쓴 것은 용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 돈 때문에 힘들어서 술집에서 일하 …지만 속마음은 순수하고 착할 거라고 …요. 용기도 정말 많이 사랑했을 거 …" 때 등장 신마다 용기와의 애틋한 시 … 이어간 만큼 중요한 때는 늘 마음이 … "소정이 김밥을 싸와서 용기랑 같 …먹는 장면은 특히 애잔했어요. 마음이 … 어렸죠."

… 용기의 베드신 또한 비슷한 맥락 …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 … 는지를 가장 임팩트 있게 보여줄 … 장면이기 때문이다.

… 오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다만 여사다 보니 촬영 전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있었죠. 그런데 현장 분위기가 편안해서 부담을 금방 덜어냈어요. 정작 촬영하는 동안에는 용기를 사랑하는 소정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거든요. 작은 손길과 눈길까지도 그 감정을 표현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쉬지 않은 연기였어요."

이연두는 완성된 영화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영화를 세 번 봤어요. 볼 때마다 다른 것들이 보이요. 소정의 마음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대사가 편집된 건 아쉽기도 했어요. 영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요. 용기의 결말을 볼 때는 소정이의 마음이 더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이연두는 '강남 1970'으로 배우로서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지난 10년 동안 힘든 적도 많았지만 배우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에너지 때문이었다. 타고난 긍정적인 성격도 긴 인내를 요구하는 연예계의 삶을 버티게 해줬다. 액션, 스릴러 등 거칠고 센 연기도 해보고 싶다는 이연두는 "아직까지 '날아라 슛돌이'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보다 성숙한 여배우로 신중하면서도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싶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몇 달 전 김혜자 선생님이 다오는 연극을 봤어요. 일흔이 넘은 나이에 혼자 무대에서 연기를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텐데 선생님이 얼마나 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일흔이 넘어서까지 연기가 즐거울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긴 시간 동안 믿고 보는 배우가 됐으면 합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사진/미술드라마 이완기
디자인/박은제

star bag

'사랑의 와이파이' 발매

가수 홍진영이 작곡가 조영수의 곁에서 3연타 흥행을 노린다. 홍진영은 조영수의 시그니처 앨범 '올스타'를 통해 '사랑의 와이파이'를 4일 정오 공개한다.

앞서 두 사람은 '사랑의 배터리', '산다는 건' 을 히트시킨 바 있다.

'드라마 피버 어워즈' 후보

배우 서강준이 2015 드라마 피버 어워즈 수상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은 5일 뉴욕 커느슨 극장에서 열린다. 서강준은 MBC '앙큼한 돌싱녀'로 베스트 브로맨스상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에선 그가 속한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서강준 이태환 강태오 유일 공명)의 축하 오프닝 공연도 이뤄진다.

첫 연극 '리타' 마무리

배우 공효진이 첫 연극 '리타(Educating Rita)' 공연을 마쳤다.

'리타'는 공효진이 데뷔 15년 만에 서는 무대로 출연하는 연극으로 화제가 됐다.

공연 횟수가 늘어날수록 여유와 애드리브, 액션이 다양해져 언론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류승룡·이준과 '한솥밥'

배우 엄태구가 류승룡·오정세·이준 등이 속한 프레인TPC와 전속계약했다.

2007년 영화 '기담'으로 데뷔한 후 '은밀하게 위대하게' '인간중독' 드라마 '감격시대' '드라마스페셜 18세' 등에 꾸준히 출연했다.

올해 개봉을 앞둔 영화 '코민로커'에서는 김혜수, 김고은과 호흡을 맞췄다.

90년대 촌스럽다고? 내 눈엔 여전히 멋있다

노래·뮤비·앨범커버까지 복고 완벽 재현

'뉴잭스윙 아티스트' 기린

"그림도 그리고 음악까지 하면 그만한 로맨티스트가 있나요."

가수 기린(30·본명 이대희)은 스스로를 "뉴잭스윙 아티스트이자 로맨티스트"라고 소개했다. 기린은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유행했던 뉴잭스윙 음악을 추구한다. 테디 라일리·바비 브라운·현진영·듀스 등이 대표적인 뉴잭스윙 아티스트다.

2010년대에 꾸준히 뉴잭스윙 음악을 선보인 가수는 기린이 유일하다. 하지만 그가 2009년 정규 1집 '스페이스 앤썸(Space Anthem)'으로 가수로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음악을 했다.

"처음부터 뉴잭스윙을 한 건 아녜요. 생각한대로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2011년 겨울부터 90년대 풍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최근 MBC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에서 시작된 90년대 열풍보다 한 발짝 앞서 있던 셈이다.

기린은 멀티 플레이어다. 노래는 물론 앨범아트·뮤직비디오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한다.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그는 미술 전시회도 여러 번 개최했다.

"지금까지 뮤직비디오는 촬영부터 편집까지 직접 했어요. 노래 분위기에 맞춰 자막도 촌스럽고 어설프게 넣었죠."

뉴잭스윙 아티스트로서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 '그대이 이제' 앨범 커버는 90년대 레코드 가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이다.

미술적 재능은 '요즘 세대 연애방식' 뮤직비디오에서 빛을 발했다. 친구와 사흘 동안 연필로 직접 1880장의 그림을 그려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를 완성했다. 기린은 온몸으로 90년대를 표현한다. 하지만 '복고'라는 키워드가 대중에게 촌스럽고 우스운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제가 90년대 음악을 하는데 '실험적이다'는 얘길 들으면 사실 좀 웃겨요. 뉴잭스윙은 이미 있던 노래장이요."

기린에게 '1990년대'는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다.

"90년대 문화 전반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어른들이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듯 저 역시 제 어린 시절이었던 90년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향수라기보단 제 눈엔 지금도 여전히 90년대 음악과 문화가 가장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 듀스를 보고 '저 형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 걸 지금 하고 있는 셈이죠."

멀티아티스트지만 가수로서 그의 가장 큰 목표는 '기린만의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뉴잭스윙은 기린' 또는 '원 앤 온리(One and only)'를 바라진 않아요. 사람들이 제 음악 도입부만 들어도 기린 노래라는 걸 알 때까지 하고 싶어요."

/황지현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신예 변요한·이주승 스크린 호흡

주연작 '소셜포비아' 내달 12일 개봉

드라마로 주목 받은 배우 변요한(사진)·이주승이 영화 '소셜포비아'(감독 홍석재)로 오는 3월 12일 스크린을 찾는다.

'소셜포비아'는 SNS에서 벌어진 마녀사냥으로 인해 한 사람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파헤치기는 SNS 추적극이다.

지난해 드라마 '미생'에서 한석율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변요한은 극중에서 '현피(온라인상의 다툼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에 참여했다 위기에 빠진 경찰지망생 지웅 역을 맡았다.

또한 최근 종영한 드라마 '피노키오'에서 안찬수 역으로 활약한 이주승은 재미로 현피에 참여하는 SNS 중독자 용민 역으로 존재감을 나타냈다.

영화는 단편 '럼블', '킴 콰이어트' 등으로 수상 행진을 이어온 홍석재 감독의 첫 장편영화다. 지난해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감독조합상과 넷팩상(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제40회 서울독립영화제 관객상과 배우상을 수상했다.

/장병호 기자

연예가 핫 이슈

조정석♥거미 2년 째 열애… 지인 소개로 만나

배우 조정석(왼쪽 사진)과 가수 거미(오른쪽)가 열애 중이다.

두 사람은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특히 음악에 대한 관심이 비슷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거미의 소속사 측은 "거미와 조정석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좋은 만남 이어오고 있는 것이 맞다"며 "둘은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활동에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만나고 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예쁜 만남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조정석은 현재 살인사건 특종의 진실 여부를 둘러싼 기자들의 세계를 그린 영화 '저널리스트' 촬영을 앞두고 있다. 거미는 KBS2 금요드라마 '스파이' OST '갈 곳이 없어'를 불렀다.

/전효진 기자 [illegible]

김상경 '극과 극' 캐릭터 변신

드라마 웃음꽃 만발 영화선 폭발적 감정 연기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허당 캐릭터로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배우 김상경이 개봉을 앞둔 영화 '살인의뢰'를 통해 극과 극의 캐릭터로 변신한다.

김상경은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GK 그룹 2인자 문태주 상무 역으로 능청스러운 웃음을 안방에 전하고 있다. 까칠한 성격의 완벽주의자 같지만 하는 일마다 서툰 철부지 캐릭터로 물 오른 코믹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오는 3월 개봉하는 '살인의뢰'에서는 연쇄 살인마에게 동생을 잃고 하루 아침에 피해자가 된 형사 태수 역을 맡았다. 태수는 동생을 죽인 살인마를 눈앞에 두고 살리지도 죽이지도 못하는 형사와 피해자로서 극단에 있는 감정을 호소력 있게 표현했다.

특히 극중에서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피폐해진 태수를 연기하기 위해 10일 만에 10kg을 감량하는 등 연기 투혼을 발휘했다. 김상경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중 가장 큰 감정의 폭발력이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병호 기자 solanin@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현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tcast

2일 열린 슈퍼볼에서 MVP를 수상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톰 브래디(12번)가 트로피를 쥐고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뉴잉글랜드 우승 '터치다운'

10년만에 슈퍼볼 트로피 탈환… 톰 브래디 3번째 MVP
티켓값 500만원… 초당 광고비 1억6000만원 최고 경신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미국 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시애틀 시호크스의 2년 연속 우승 도전을 좌절시키고 10년 만에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되찾았다.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 챔피언 뉴잉글랜드는 2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피닉스 대학 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9회 슈퍼볼에서 4쿼터 막판 신인 세이프티 말콤 버틀러의 극적인 인터셉션에 힘입어 시애틀을 28-24(0-7 14-14 0-10 14-0)로 제압했다. 이로써 뉴잉글랜드는 2002년, 2004~2005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슈퍼볼 정상을 밟았다.

'미국의 연인'으로 불리는 스타 쿼터백 톰 브래디는 4쿼터에만 터치다운 패스 2개를 찔러넣는 등 터치다운 패스 4개를 성공시켜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이미 세 차례나 슈퍼볼 우승 반지를 낀 브래디는 이번 우승으로 전설 조 몬태나, 테리 브래드쇼와 함께 최다 우승(4회)을 기록한 쿼터백이 됐다.

브래디는 또 50차례 패스를 시도해 37번을 정확하게 꽂아넣어 328 패싱 야드를 기록했다. 슈퍼볼 역대 최다 패스 성공을 기록하며 역전승을 견인한 브래디는 2002년, 2004년 슈퍼볼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슈퍼볼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역대 슈퍼볼에서 세 차례 MVP를 수상한 선수는 브래디가 어린 시절 우상으로 삼았던 몬태나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날 슈퍼볼 입장권 가격은 티켓 판매 사이트인 스터브허브에서 평균 4600달러(약 506만 원)에 팔렸다.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슈퍼볼 역대 최고가로, 슈퍼볼 티켓의 액면가가 800달러(약 88만원)에서 1900달러(약 209만 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5배 이상 가격이 뛰어오른 것이다.

광고비 역시 30초짜리 한 건당 450만 달러(약 49억원)에 판매돼 1초당 1억6000만원의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주최 측은 총 광고 판매액으로 3억5900만 달러(약 3923억원)를 벌어들였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한국야구는 이제 시작이다

이천종의 베이스볼 카페

올해로 니 10구단으로 하더 되는 한국야구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 작년 광주에 챔피언스필드가 등장해 눈길을 모았고 대구도 새로운 구장을 건립하고 있다. 수원구장도 산뜻하게 리모델링 됐고 고척동의 돔구장도 내년부터는 가동된다고 하니 이 정도면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는 셈이다.

이제는 내용을 채울 콘텐츠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필요하다. 적어도 3시간 이내에 경기를 마쳐야 한다. 단순히 이기는 것보다는 팬들을 위한 야구를 해야 한다. 타자와 투수는 초구부터 승부를 펼치는 적극적인 야구가 필요하다. 승부에 매몰되어 야구의 재미를 반감시키면 안된다.

상하위팀 사이에 전력평준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항상 꼴찌가 꼴찌가 되면 문제다. 전력이 대등해야 야구는 재미있는 법이다. 그래야 팬들이 기대를 갖고 응원을 보내고 흥행의 파이가 커진다. 구단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전년도 꼴찌에게는 파격적인 당근을 주어야 한다.

야구장은 여가를 즐기는 문화공간이다. 야구장에 가면 정말 재미있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각 구단이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각각 야구장만의 정체성과 특성을 갖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1000만 관중으로 가는 중요한 덕목이다.

마지막으로 스타는 가장 중요한 야구 콘텐츠이다. 한국야구는 새로운 스타가 절실하다. 스프링캠프가 펼쳐지고 있지만 이슈를 모으는 젊은 선수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저 10구단, 신구장 등 외형에만 기대기 보다는 머리를 맞대어 내실 있는 프로야구 발전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야구는 이제 시작이다.

PS 그동안 졸고를 읽어주신 독자님들 감사했습니다. <끝>

/OSEN 야구전문기자

"모건! 짐싸서 한국으로 가"

김성근 감독, 군기 빠진 용병에 경고

"모건! 넌 짐 싸서 한국으로 가."

김성근(72·사진) 한화 이글스 감독이 스프링캠프에서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에게 경고성 '벌칙'을 가했다.

일본 고치에서 팀 스프링캠프를 지휘하는 김성근 감독은 2일 "(외국인 외야수) 나이저 모건이 오늘 한국으로 돌아간다"며 "심각한 부상이 있는 건 아니다. 나와 한화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건이 송구 훈련을 할 때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조기 귀국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 훈련을 따라올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선수들의 의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야는 한화의 취약한 포지션으로 주전 중견수 후보인 모건을 스프링캠프 도중 국내로 보내는 건 이례적이다.

하지만 김 감독은 "지난달 25일 외국인 선수 3명이 훈련에 합류했을 때 개별 면담을 통해 '여긴 너희가 전에 뛰던 팀과 다르다.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이미 평가전을 통한 실전 훈련에 돌입했다. 김 감독은 달아오른 캠프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선수는 용병도 예외없이 누구나 '벌칙'을 받는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김 감독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선수 대부분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다"며 "제일하지 않은 선수는 도태된다. 예외는 없다"고 단호한 모습도 보였다.

앞으로 모건은 서산 훈련장에서 2군과 훈련할 예정이다. /김민호기자

英매체 "이청용 이적 임박"

크리스털 팰리스 17억 계약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정강이뼈 골절 부상을 당한 이청용(27·볼턴·사진)이 소속팀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가 100만 파운드(약 16억5000만원)에 볼턴에서 이청용을 데려오는 계약을 곧 체결한다고 보도했다.

2009년 볼턴에 입단한 이청용은 올해 6월 구단과의 계약이 끝난다. 소속팀이 챔피언십(2부리그)에서 탈출할 기미가 안보이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던 상황이었다.

데일리메일은 "이청용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에 나섰다가 오른쪽 정강이뼈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며 "정밀 검사를 받게 하겠지만 큰 부상이 아니라 조만간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어 이적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선을 그었다.

영국 런던을 연고로 하는 크리스털 팰리스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가운데 13위를 달리고 있다. /김민준기자

부종 해소에 좋은 팥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팥은 우리에게 친숙한 본초다. 조상들은 팥으로 밥을 짓고 국수나 떡을 해먹었고, 잡귀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해서 해마다 겨울철이면 빠지지 않고 팥죽을 먹기도 했다. 요즈음에도 붕어빵, 찹쌀떡, 호빵 등 겨울 간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고 있다.

예로부터 팥은 쌀이 주식인 우리에게 부족한 비타민 B1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 각기병을 막아주는 영양소로 잘 알려진 비타민 B1은 피로 해소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기억력 감퇴나 수면 장애에도 효과가 있다.

팥에는 사포닌,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 이들 성분은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효과적인데, 세포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장과 혈관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 팥의 사포닌 성분은 세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팥 가루를 물에 충분히 갠 후 세안에 활용하면 깨끗한 클렌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팥이 피부 속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염증 완화, 각질 제거 등에 도움이 된다.

특히 팥은 신장 기능을 도와 이뇨 작용을 한다. 소변을 잘 보지 못하거나 신장이 약해서 수분이 체내에 정체되고 몸이 잘 붓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다만 팥은 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양인에게 적합하다. 음인의 부종에는 팥 대신 마늘이나 생강처럼 열을 내서 몸 안의 차고 습한 기운을 없애주는 본초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팥물이나 팥차를 다이어트용으로 장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팥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숙취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술로 인해 열이 오르는 것을 내려주고, 복통, 구토(메스꺼움)을 진정시켜서 컨디션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날씨

2/3 火 일출시각 07:35 일몰시각 17:5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131.co.kr

지역	기온
서울	-3/5
청주	-4/5
대전	-4/6
전주	-3/6
광주	-4/6
제주	3/8
강릉	0/6
울릉도	1/5
대구	-2/8
포항	0/7
울산	-1/7
부산	1/11

겨울에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등을 충분히 먹으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5	7
7	9		1					
	8					9		
	5		6	4		8		
			7		5			
		2		9	1		4	
		1					7	
					2		8	9
2	7					5		

					4			
2	7				1			4
			7	5		9		1
						3	5	8
6	8						2	7
5	1	2						
7		9		4	3			
1			2				8	3
			6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펜시 스도쿠 프리미어 (피기 고든·트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저와 딸이 올해 삼재라 걱정됩니다
삼독심 돌이켜보면 어려움 멀어질 듯

범사랑 여자 1947년 3월 12일 양력 오시
딸 1985년 5월 22일 양력 낮 12시 6분

Q 올해까지 삼재인데요, 직장이 2시간 거리라 이번에 작은 차라도 할부로 사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괜찮을는지요? 요새 들어 경기가 안 좋아 회사도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수금이 잘 안돼 앞으로 급여를 잘 받을 수 있을지도 점점 걱정되고 있습니다. 47년생 양력 3월12일 오시이자 여며 딸은 85년 양력5월22일 낮 12시 6분입니다. 올 한 해 조심해야 할 일이 있는지 저와 딸도 같이 삼재라 걱정입니다. 선생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A 올해는 삼재가 돼지(亥)·토끼(卯)·양(未)띠가 됩니다. 삼재가 들어서 그런지 왠지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점점 꼬이면 가게 되어 괜한 일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정말 삼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역학원에 가서 문의해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무속인에게 또는 절에 가서 문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삼재 방지 부적도 하고 여러 가지 액운 방지를 위한 방법이니 삼재풀이를 하다 보니 그에 상응하는 경비지출도 따르게 됩니다. 삼재가 들어도 별로 잘못되는 일도 없이 무난히 지내는 사람도 있어서 삼재라는 것이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복 삼재가 되면 하는 일이 잘되고 흉 삼재가 되면 삼재 잘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인 사주를 보고 운의 흐름에 따라 운이 나쁘면 뭐 든 하는 일이 잘 안되고 운이 좋으면 뭐든 하는 일마다 잘되는 것입니다. 삼재가 들어 재난과 불과가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기도 하겠으나 운이 기신 운(忌神運)으로 흐르면 들림없이 등과가 섬기고 운이 용신 운(用神運)으로 흐르면 매사 잘 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 해석이 되니 삼재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날 삼재에 해당됩니다. 즉 나가는 삼재가 되어 관재구설, 질병 같은 건강상에 좋지도 멀리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재는 탐(貪 욕심), 진(嗔 성냄), 치(癡 어리석음)에 의해 업(業)이 쌓이게 되고 그 것으로 인해 결국에 언젠가는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재풀이란 탐(貪), 진(嗔), 치(癡)하는 삼독심(三毒心)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작게라도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어려움은 멀어져 갈 것으로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사주스타 www.sajustar.com 1600-3114

쥐 48년생 작은 희생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60년생 나서면 공치 아프고 숙여진 도움을 받습니다. 72년생 실력을 기다림 뿐이라 제입니다. 84년생 윗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소 49년생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게 좋습니다. 61년생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73년생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85년생 목표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랑이 50년생 반동의 기미가 안 보이니 답답합니다. 62년생 젊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74년생 정신적 여유를 위해 돈 씀씀도 필요합니다. 86년생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토끼 51년생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이 필요합니다. 63년생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75년생 적극적으로 도약하는 하루입니다. 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도 따라옵니다.

용 52년생 아랫사람에게 칭찬해 주는게 좋습니다. 64년생 적잖의 낭패가 있으나 결과는 좋습니다. 76년생 원칙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88년생 무리한 계획이라도 일단 시작하세요.

뱀 53년생 뜻하지 않은 조력이 있으니 자리잡는 과정입니다. 65년생 주변 움직임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세요. 77년생 바쁘게 움직이나 소득은 없습니다. 89년생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말 54년생 이익이 된다면 뒤으로 조절하는게 좋습니다. 66년생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칠 기회가 옵니다. 78년생 과감한 시도를 해봐도 좋겠다. 90년생 토라를 박물되 대가를 기대하진 마세요.

양 55년생 중심이 되어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67년생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호전됩니다. 79년생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니 한층 수월합니다. 91년생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으니 때를 기다리세요.

원숭이 56년생 당장은 돈이 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선택하세요. 68년생 아랫사람보다 윗사람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년생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2년생 귀순하여 안좋은 일을 관합니다.

닭 57년생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69년생 전환의 계기가 들고 기회가 옵니다. 81년생 주변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93년생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개 58년생 가족 화합에 노력하면 길하게 됩니다. 70년생 운이 좋으니 확실한 목표를 세우세요. 82년생 노력한만큼 돈 경도 따라주니 최선을 다하세요. 94년생 가까운 사람을 더욱 잘 챙겨야 됩니다.

돼지 59년생 활동 무대에 변동이 생기고 바쁘게 움직이세요. 71년생 못 마땅한 상황을 스스로 바꾸어야 합니다.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95년생 다른 사람 말을 대신할 게 같습니다.

성큼 다가온 봄내음 DDD(4월)을 이틀 앞둔 2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분재원에서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렸다 /연합뉴스

승강기 공사비 거품 뺀다

서울시, 산정기준 도입… 3년간 154억 절감 기대

공사비를 산정하는 표준 기준이 없어서 시공업계마다 제각각이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비 산정기준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해 올해부터 본청, 25개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업계 견적 방식보다 에스컬레이터는 1대당 평균 4800만원, 엘리베이터는 1대당 평균 600만원의 설치 공사비 거품을 줄일 수 있다.

향후 약 3년 동안 서울시에 예정된 에스컬레이터 약 320대, 엘리베이터 약 6??대의 설치공사에 적용해보면 기존 업계의 견적 방식 대비 총 154억원(에스컬레이터 약 129억원, 엘리베이터 약 2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청, 관련 기서,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에서는 승강기 설치공사를 발주할 때 시가 마련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 자체 산정기준(서울형 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

설치 공사비 자체 산정기준은 시가 2012년 1월 '승강기 설치공사 품셈연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래 3년(2012~2014년)에 걸친 ▲현장실사 ▲발주기관 대상 의견수렴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에볼라 의료대 3진 파견

7일 영국 출국…다음달 21일 활동 종료

정부가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 의료대 3진을 예정대로 파견한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3진은 오는 7일 출국해 영국에서 의료훈련과 시에라리온 현지 훈련을 이수한 후 23일부터 4주간 의료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또 3진은 최근 시에라리온 내 에볼라 감염자가 급감함에 따라 인원을 감축해 총 5명(의사 2명, 간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2일부터 3일간 국내에서 훈련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6일 귀국한 1진을 별도의 장소에서 3주간 격리 관찰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에볼라 감염 증상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긴급구호대의 시에라리온 현지 활동은 다음 달 21일 종료된다.

/황재용기자

대한독립 만세 2일 서울 중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독립선언 선포 제96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행사는 만주와 러시아 등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1919년 2월 1일 중국 지린성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1,300,000,000,000원

지난해 임금체불액 5년새 최고치 기록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불 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09년 30만1000명이 1조343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403억원(56.1%),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또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047억원(30.7%)과 건설업 331억원(23%),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순으로 파악됐다. 체불 발생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 악화(56.3%)와 사업장 도산·폐업(27.9%) 등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13만명

전년보다 1.6% 증가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3만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000명(1.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현황'을 밝혔다.

1월 구직급여 총 지급자 수 및 지급액은 각각 39만3000명, 365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자 수는 3만1000명(8.6%), 지급액은 506억원(16.1%) 증가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을 돕고 구직 활동에 전념하게 하려고 지급하는 급여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조현정기자

인사

■ 행정자치부
◇ 실·국장급 전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권영수 ▲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획관 이형기 ◇ 과장급 전보 ▲ 홍보담당관 정대연 ▲ 자치제도과장 문영호 ▲ 지역경제과장 신상철 ▲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장 신승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차호준

■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장 채승호 ▲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 정의식

■ 법제처
◇ 과장급 전보 ▲ 사회문화법제국 박경금 ▲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 조정렬

■ 국민권익위원회
◇ 국장급 전보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권근상 ◇ 과장급 전보 ▲ 민원정보분석과장 정혜영 ▲ 심사기획과장 김재신 ▲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서태식 ▲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김원엽 ▲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조덕현 ◇ 부이사관 승진 ▲ 사무처 서재식 ▲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 박민주

■ 한국공항관리공단
◇ 전보 ▲ 경영전략본부 운영지원실장 박병선 ▲ 호남지사장 김선규

■ 삼성증권
◇ 담당 및 사업부장 승진 ▲ 김상준 리스크관리담당 ▲ 이상헌 기업금융사업부장 ◇ 부서장 승진 ▲ 한정훈 기업금융1팀장

■ 서울대학교병원
▲ 암병원장 김태유(혈액종양내과 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장 겸 대학원 행정학과장 윤태범 ▲ 자연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장 겸 대학원 환경보건시스템학과장 박지호 ▲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장 겸 대학원 평생교육학과장 김경희

■ 가트너 코리아
▲ 부사장 이선우

■ 한국장학재단
◇ 2급 승진 ▲ 학자금지원부장 김혜진 ▲ 든든학자금대출부장 손영학 ▲ 국가장학지원부장 조정현

■ 포스코엔지니어링
▲ 부사장 연규성 ▲ 전무 이태열 ▲ 상무 김형수

■ 알리안츠생명
◇ 부서장 승진 ▲ 언더라이팅부장 심형어 ▲ 콜센터부장 최상은

■ 문화예술위원회
◇ 본부장 ▲ 예술지원본부장 송시경 ◇ 부장 ▲ 기획예산부장 김병주 ▲ 문화예술진흥센터장 장 철 ▲ 자료서비스부장 오연주 ▲ 무대예술부장 이인권

■ 한국거래소
◇ 신임 본부장보 ▲ 경영지원본부 김병철 ▲ 시장감시본부 최 욱 ◇ 전문위원 위촉 ▲ 파생상품연구센터장 이유국 ◇ 본부장보 전보 ▲ 유가증권시장본부 권상향

■ 흥아해운
◇ 전무 ▲ 오무균 ▲ 김형석 ◇ 상무보 ▲ 유경필 ▲ 이홍규 ▲ 최덕림 ▲ 조숙현

부고

▲ 박쇠기씨 별세, 박종선(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소재내수팀장)씨 부친상 = 2일 오전 5시 30분 전북 정읍 호남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063-533-4544

▲ 김관점 씨 별세, 박익순(안양시 홍보실장)씨 모친상, 김진녀(안양시 가족여성과 주무관) 시모상 = 2일 오전 3시40분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귀빈실(1층), 발인 4일 오전 7시 031-449-9000

▲ 이병식씨 별세, 이민수(광주은행 광주 별고객 사장 전남경영자협회 회장)씨 부친상 = 2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발인 5일 오전 062-231-8901

▲ 김미선씨 별세, 김흥식(KB국민은행 자본시장본부장)씨 부친상 1일 오전 7시5분 혜화동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010-5471-0283

과거사위 전 조사관 2명 영장

변호사에 소송 원고 소개…억대 수수료 챙긴 혐의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과거사위원회에서 '납북 귀환 어부 간첩 조작사건' 조사에 참여한 뒤 김준곤(60) 변호사에게 소송 원고를 소개해주고 각각 억대의 알선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소송 알선에 활용했다고 보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의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관을 지낸 후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에 근무하면서 진상규명 사건의 후속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들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이튿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검찰은 노씨 등 전직 조사관들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임비리 의혹을 받는 변호사들에 대해 본격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대상 변호사 7명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56)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변호사법은 소송 수임과 관련해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신불 예방이 최선! 산림청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충청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다. /연합뉴스

고성도 AI 비상 경남 고성군 거류면에서 AI 방역작업이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마을의 한 오리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연합뉴스

한달에 13번 PC방 턴 커플

서울 강북 일대 PC방을 돌면서 한 달간 10여 차례 다른 손님의 소지품을 훔쳐 달아난 20대 도둑 커플이 붙잡혔다.

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천모(24)씨와 여자친구인 김모(20)씨는 최근 성북구와 강북구의 PC방을 돌아다니며 13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로 접근해 손님의 스마트폰과 지갑 등을 훔쳤다. 천씨가 이를 챙기는 동안 김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이용객이 많아 행동거지가 눈에 띄지 않고 관리자의 주의가 비교적 소홀한 50~100석 규모의 대형 PC방에서 절도 행각을 이어갔으며 스마트폰은 인터넷에서 만난 이른바 대포폰 업자에게 팔아 넘겼다.

경찰은 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으며 김씨도 입건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스마트폰을 사들인 대포폰 업자의 뒤를 쫓고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명동 사채왕' 사기 도박 혐의 추가 기소

꽃뱀·공지까지 동원…2억원 가로채

현직 판사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씨(61)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따르면 최씨는 진형(64), 서모(62·여)씨 등과 함께 A(71)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2011년 11월께 자신의 제천 별장에서 한판에 최대 200만원의 판돈이 걸린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짜고 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천 별장에서 돈을 잃기 한달 전에도 속초의 한 리조트에서 최씨 일당과 서씨 등에게 사기도박으로 6500만원을 잃었다. 이들은 꽃뱀 역할을 맡던 서씨가 A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하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와 도박판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나눠 A씨를 속였다.

최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모씨에게 190억원을 하루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3억5000만원(연이자율 672%)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2명을 최근 구속했다.

/조현정기자

양주 마트 여성 분신사건 오늘 시신 부검

"계약금 반환문제 다툼등으로 극단적 선택"

경기도 양주시 한 중형마트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분신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일 시신을 부검한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5시13분 양주시 덕송동 소재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김모(50·여)씨가 숨졌으며 이에 김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무실 안에는 부탄가스 난로가 있었으며 '펑' 소리와 함께 마트 내에서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 또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숨진 김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했던 이모(53)씨의 아내로 마트 업주 측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씨는 지난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 마트를 넘겨받기로 돼 있었다. 인수 금액은 총 6억5000만원이고 계약금 5000만원을 먼저 지불했다. 이에 지난달 20일 남은 금액 중 4억원을 대출 형식으로 지급한 뒤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3개월 후와 5개월 후 각각 1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 등이 이 4억원을 누가 대출받을 것인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남편이 마트 인수가 불발됐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사고 한 시간 전쯤부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방화) 피의자 김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 원인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마트 계약 관계 등은 민사적인 문제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 /황재용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

고(故) 황선순 할머니가 숨을 거둔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인 A씨가 지난달 31일 입원했던 병원에서 지병으로 운명했다고 2일 밝혔다.

정대협은 "생전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피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아 성함을 포함한 그 어떤 정보도 알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재용기자